

원광대학교병원 개원 41주년 기념
부모님 은혜 수기 응모작 모음집

당	신	의	마	음	,					
병	원	이	함	께		합	니	다		



원광대학교병원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오래 오래 행복하자 엄마!

Date: No.: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당신,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당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합니다 ~"

엄마,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 엄마 생각이 나져 눈물이 나

나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렸을 아님 저런도 막내 알만 생각해 큰니 오빠들이 왔었는거 사오고

몽돈 주면 나한테 전화해서 와 가져 가라고. 병실 사랑받고 나져 먹고 엄마 좋아하는 갈actus나 시켜

드시라하면 코로나 때문에 배달 못한다고. 가지고 있으면 잊어 버리니 너 갖다 쓰라 하는 엄마 때문에.

엄마 생각 나.

10년전 최석방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는 응급실 바닥에서 주저앉아

영영 울었잖아 우리 막내할 어찌나고 하여 참피한 줄도 모르고 내 꺼 앉아주면서...

의식이 깨어 나가를 기다리며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3일 밤낮을 엄마할 자리 뜨지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중환자실 문 열릴 때마다 얼은 앞으로 달려가 아무일 없다고 물어보고 그랬지

의식이 돌아오고 나해야 서로 안성하고 기뻐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말하는게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해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 본 결과 뇌출혈 적전이라 했지. 엄마는 서울 들어가 거기까지도 내 걱정을

최석방 걱정을 더 많이 했잖아. 근데 엄마 자궁 와서 살라는데 너무 너무 미안하고 곱슬한 말이지만

나 그쪽 엄마처럼 될까봐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었어.

엄마는 서른 여섯이라는 나이에 혼자 되어 홀지어머니와 6살배, 힘든 농사일까지

엄마나 고생했어. 시집을 그 때까지 엄마와 헤어져 본 적이 없는 나는 그걸 다 봤기에 더욱

사람들이 그러잖아. 작은 엄마 딸자 닮는다고. 순간 겁이 났고 어쩔라지 했지.

그래서 엄마를 바리불 여류가 그러우 없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참으로 어리석고 철 없는 막내할이 또 철부지 생각을 했지 뭐야

나 시집 가는 날, 예식 내내 우는 엄마를 보고 사람들이 친절 엄마가 왜 그렇게 많이 우는지 수근했지.

그 소리가 내 귀에도 들려 '좋은 날 왜 자꾸 울어. 그만 좀 울어. 시집갈 때 울면 시집살이가 쫄라지 않대'

하여 투정 부렸잖아. 엄마의 그 눈물의 의미를 조금만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자식을 작자어 보내줄까봐 겁을 눈물로 대신한 엄마의 그 마음을.

엄마의 그 호로백방이, 손하나 발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만 계시고

렝어 자식을 찾아올까 문 앞만 바라보는 우리 엄마.

모두 나 이 막내할 탓인가 같아 너무 미안하고 곱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자주 찾아갈수가 없어 더욱 더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근데 엄마, 이 나이 먹어 보니. 이제야 조금 알겠어.

Date:

No.:

엄마도 인해 나 책임감을 배웠고, 엄마의 강인함을 보고 자랐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느끼며 자라왔으니 내 자식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었으며, 할머니께 지금 정성으로 대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 나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고부 갈등 없이 잘 살 수 있었으며 장독대 앞에서 모두들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보면서 나도 내 가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고, 없는 살림이지만 이웃과 나누는 엄마를 보며 베품의 소중함을 배웠기에 나도 작지만 그리 실천하려 하고 있어.

그리고 보니 사 정할 엄마 할 자 많았네. 엄마 고마워.

이렇듯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몸소 보여주며 무언의 가르침을 주어서 오늘도 내가 있게 해 주셨어.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막내할 걱정은 이제 그만해.

엄마 닮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구.

엄마는 모놀도 6살때부터 다 전화하셨지.

1번 큰 언니 2번 큰 오빠 3번 작은 언니 4번 작은 오빠 ... ㅎㅎ.

지금처럼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줘.

“왜 니 아버지는 나한테 미쳐서 너를 괴롭히냐” 하지 말고. “알았지.”

“엄마 하면 어이 하고 두라기 너에게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가 오늘은 더 생각나네.

엄마 사랑해. 아주 많이 많이

막내 딸이



최우수상 수상작은 손편지로 응모하였습니다.



울 아버지

아버지.

세탁업이란 직업으로 평생을 사시면서도 손에서는 책을 놓지 않으시고 65세에 4전 5기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15여 년 동안 성실한 직장생활을 하시었던 위대하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울 아버지.

제가 10살 때 자식교육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중 큰 화재로 7살 어린 아들까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설상가상 몸에 큰 화상을 입으셔서 5년간 반복적인 수술과 투병생활을 하시었던 울 아버지. 어린 저는 그때 아버지 옆에서 다니던 학교를 쉬고 병수발을 하면서 철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이면 아버지는 통증에 시달리고 그럴 때면 어린 저는 아버지의 아픈 신음소리에 잠이 깨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없이 밤새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고 또 주무르는 것뿐이었어요.

왜 아버지는 낮에도 밤에도 아플까.

때로는 귀에 들리는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척 잠에서 깨지 않은 척도 했지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상태도 많이 좋아져 두 다리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진 것은 세탁기술 밖에 없다 하시면서 다시 세탁업을 시작하시었지요.

연고지인 부안으로 내려와 조그만 가게를 얻어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출발하신 아버지.

그 당시는 양복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옷에 구멍이 나거나 손상되면 짜깁기를 해서 입는 터라 기술이 좋은 아버지는 밤낮으로 일에 열중하시고 신체의 불구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여정을 이어나가셨지요. 그 덕분에 조금씩 살림살이가 좋아져 저는 다시 학교를 가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화상을 입어 일그러진 발과 악어가죽처럼 생긴 두터운 흉터로 뒤덮인 두 다리로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과감하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사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는 갑자기 척추에 이상이 생겨 잘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여기저기 병원을 데리고 다니시며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성치 않은 다리로 오토바이를 배우셔서 저를 6개월간 통학을 해주셨지요.

아버지의 정성으로 다행히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하며 저는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부단하게 일밖에 모르시며 제대로 된 여행 한번 안 가신 울 아버지.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 밖에 다른 표현이 없구나 싶을 정도로 원망스럽고 잔인하게 세상은 또 한 번의 화마를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던 날 그날따라 수업이 늦게 끝나서 어스름 밤이 돼서야 터미널에 도착 후 집으로 향하던 중 멀리서 보이던 집의 형체가 눈에 안 보였어요. 가슴을 졸이면서 가까이 갔을 때는 이미 제 눈에는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새까맣게 그을린 여기저기 널린 옷가지며 가구들.....

다행히 아버지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후 세탁소에 맡겨진 옷들을 배상하시면서 온 재산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굶어도 남에게 손해는 입힐 수 없다는 신념하에 할 수 있는 능력 한계에서 그 수많은 옷을 전부 배상해 주셨지요. 그때에 아버지의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셨고 종교의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신 모습을 생생히 지켜본 저는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 오뚜기 같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저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등록금은 해 줄테니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 은혜 덕분에 오늘날 저는 30년 이상 간호사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차가운 이른 새벽에 항상 성가와 독경을 들으시며 일을 시작하셨던 아버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명절이나 휴일이나 쉬지 않으시고 항상 일에 매달리셨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넉넉한 자비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세탁소를 하시면서도 신앙심이 돈독하여 항상 수행정진과 교리공부에 틈틈이 정진하시고 그 외중에 성지해설사도 하시면서 나름의 인생항로를 치열하게 개척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또 한 번 인생개척을 일구셨지요. 세탁소를 하시면서도 주경야독 학교 다니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시고 도서관도 다니시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4전5기의 불굴의 의지로 주택관리사자격에 당당히 합격하신 불굴의 힘을 보여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합격한 것도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지만 ‘힘든 세탁소를 이제는 안하시고 좀 더 편안하고 출근과 퇴근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생 후반기를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게 되셨구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자식에게 한없이 한없이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주셨던 아버지.
인생의 본보기가 되셨던 아버지! 10여 년의 직장생활을 하시는 동안 갑작스런 위암선고 후 수술을 받고도 깨끗한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자신관리에 철저하셨던 아버지. “우리 든든한 간호사 딸이 원광대학병원에 근무하는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보이셨던 우리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을 가끔씩 뵈오면 그 고단한 몸과 화상으로 얼룩진 손과 발이 어찌면 이리도 소중하게 제 인생 롤 모델의 잔상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백척간두의 가장자리에서 항상 맴도는 아버지로 각인되는지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딸이 원광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게 대견하다고 항상 자랑삼아 하시던 모습.
갓 입사하던 신규 간호사 시절 아침 근무를 나갈 때면 꼭꼭 차를 태워다 주시곤 했지요.
때론 자식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할까봐 진료 오실 때 알리지 않고 그냥 다녀가시곤 했지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 못난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는데 급급하여 땀 벌어진 효도 한 번 별로 해 드린 게 없는데..
한없이 자식 향하는 사랑만 베풀기만 하신 올 아버지

세월은 야속하게도 흐르고 흘러서 이제 아버지는 깜빡깜빡 혈관성 치매로 판단력도 흐려지시고 고집도 세지시고 화도 버럭버럭 내시고
그 좋아하던 성가와 독경도 눈에서 귀에서 손에서 마음에서 많이 떠나보내시고....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릴 때가 많아요.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어찌 다 갚아야 하올지 먹먹할 따름입니다. 조금씩 기억과 판단력이 앓아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앙상한 어깨와
등 너머로 켜켜이 쌓인 아버지의 고단한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저는 다짐합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런 우리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하며 아버지의 그림자를 뚝뚝따라갈게요.

눈부신 새하얀 눈발에 은혜의 발자국을 한점 한점 내어주신 올 아버지.

아버지의 뜻 잘 받드는 딸이 될게요.

오늘도 아버지의 “우리 큰 딸이나 바쁜데 뭐 하러 왔냐 애들은 잘 있냐” 하는 그 목소리를

10년 20년 계속 듣기 위해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계셔야 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마음, 병원이 함께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꽃게 밥상이 그림습니다.

“엄마 잘 모실게, 동생들 잘 돌볼게”

당신의 아픈 손가락이자 저에게는 지금도 가슴 속 원망의 대상이지만 한 언니의 이 한마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당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익산으로 이사했던 때가 벌써 37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그리고 가슴 시린 추억만을 남겨두고 당신을 아득히 먼 세상으로 떠나보낸지도 7년이나 되었습니다.

문득 당신의 지난날을 돌이켜 봅니다.

당신은 간호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지만 당신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지요. 지아비의 사업 부도와 이른 사별로 홀로되어 자식들 뒷바라지에 힘든 세월을 보냈지요. 그런 세월 속에서도 남은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당신은 오투기 처럼 인생 역전을 일구셨지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고포1리 65번지 선창Hits” 율타리에서 말이에요. 먹고 살길이 막막해 무얼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릴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다가 바닷가에서 억척스럽게 횡집을 운영하여 적잖은 부를 이루었지요.

어찌나 장사가 잘 되었는지 저녁이면 당신 앞치마에 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해서 보기만 해도 배부른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당신을 도와 하루도 빠짐없이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밥상을 치워야 했지요. 휴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놀러온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움에 하염없이 울었던 그때의 기억이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 그 시절 어느 꽃게 철의 일 기억하세요?

꽃게 철이 되면 빨갛게 익은 꽃게가 소쿠리에 수북이 쌓여 한 마리만 먹어봤으면 하는 철부지 소녀의 소원이었던건만 당신은 하나도 남김없이 팔아야 한다며 억척을 부리셨지요. 당신의 그런 억척스런 모습을 생각하면 먹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꽃게가 너무 먹고 싶어 다리 하나 몰래 떼어먹다 들켜 뒤지게 맞았던 그 때의 기억이 다시금 제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당신은 억척스럽게 부를 이루셨지만 한 칸에 있었던 저는 참으로 외롭고 가슴시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남들에게는 후덕한 여장부였지요. 고향을 떠나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고향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가 떠나온 뒤 동네에 배고파서 찾아온 거지들이 제 일 아쉬워하고 울면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씁쓸해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당신은 배고파 찾아온 거지들에게 푸짐하게 한상 차려 배불리 먹여 보내곤 했었지요. 10여 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쌍가락을 당신 손가락에 끼워드렸건만 끼어있던 것도 빼어 불쌍한 사람 손에 쥐어 보냈던 당신, 당신의 삶은 늘 그랬지만 그런 당신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당신은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말았고, 당신이 아낌없이 베푼 언니 또한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요. 철석같이 믿고 맡겨 놓았던 전 재산은 사라지고 당신이 그리 아파했던 손가락인 언니는 연이어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 교수사위 도와주고 박사학위 취득하던 바로 그날 2차 부도의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픈 손가락 딸내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저에게 남겨진 것은 세 조카와 당신, 그리고 사라진 언니의 부탁으로 그렇게 무서운 줄도 모르고 확인서에 날인했던 ‘보증인’이라는 한 장의 족쇄 문서였지요.

젊은 20대 꽃다운 시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나긴 어둠과 고통의 시절이 되어 버렸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었고 주어진 현실에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고대하며 고통의 눈물도 잊은 채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달렸지요. 사춘기에 접어든 조카 둘과 꼬맹이 조카를 위해 사라진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요. 그도 모자라 협심증과 고혈압 당뇨병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당신까지도 부양하게 되었지요. 아파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약을 타다 드릴 때면 통명스럽게 “여기 있어” 라고 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가 없었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의 시련을 주시는지? 당신을 원망 또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지요. 그럴 때면 당신은 내게 늘 “미안하다. 이 엄마가 일찍 죽어야 하는데, 무거운 짐만 지게 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라고 하셨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은 제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구나. 그게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라며 애절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래도 열심히 살다보니 조카들도 성장해 제 곁을 떠나게 되었고 저도 저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임신 중독으로 결혼 후 5년 만에 얻은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고민 끝에 당신께 곁은 전화 한 통화에 “엄마가 봐줄게” 라고 하셨지요. 그 따뜻한 말씀에 7년간의 세월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지금 당신이 더욱 그리웁습니다. 우리 외손자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죽어가지 늘 입버릇처럼 말씀 하시던 당신에게 갑작스런 안면 삼차신경통이라는 병과 알츠하이머병까지 찾아와 당신을 더 아프게 했지요. 그 와중에 저희 부부에게도 뇌종양과 뇌동맥류라는 충격적인 병이 발생했고 저는 두 번에 걸친 수술과 매년 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했었지요. 병원신세로 당신은 5층, 저는 3층, 사위는 2층에 입원을 한 적도 있었지요.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은 굳어가는 몸으로 제 입원실에 찾아오셔서 딸의 모습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지요. 병이 날로 악화되어 남을 잘 알아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당신을 더 살려 보겠다고 의사선생님들께 살려 달라 애원했건만 결국에 두 주먹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욕창을 지켜보며 하염없이 울었지요. 당신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울고 또 울었지요. 그것이 제가 당신을 원망했던 회개의 시간이자 당신에게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더욱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져 가고 VRE균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궁궁하며 옮겨 다니다 결국 막내딸이 근무하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당신의 마지막 생을 보게 되었지요. 새벽 전화소리에 허겁지겁 달려가기를 수십 번, 몇 시간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이제는 당신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을 느꼈지요. “따님 내가 잠시 볼 테니 눈 좀 부쳐요” 간병인 여사님의 말에 잠깐 휴게실에 내려가 눈을 붙이려는 순간 “얼른 올라와요”라는 고함소리에 허겁지겁 달려갔지요. 덮여있던 하얀 포를 내리고 “엄마”하고 크게 불렀지요. 놀랍게도 당신은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감았던 눈을 온 힘을 다해 뜨고 저를 향해 무언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간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눈에 흐르는 눈물과 함께 생을 마무리 하는 당신의 눈을 이 딸은 혼자서 보았지요.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애절한 시간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었기에 감사한 시간이었지요.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는 당신을 만지면서 그간 살아온 한 여자로서의 삶이 참으로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하며 당신이 너무 불쌍해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단 한 번도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없었지요. 그런 모습을 여자인 저로써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당신을 원망하는 시간보다 이해하는 시간들을 더 가졌더라면 후회의 눈물을 그나마 적게 흘렸을 텐데 돌이켜보면 아쉽기만 합니다.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불러 봐도 들을 수 없는 한줌의 재로 변해버린 당신을 그리며 오늘도 그리움에 소리 내어 울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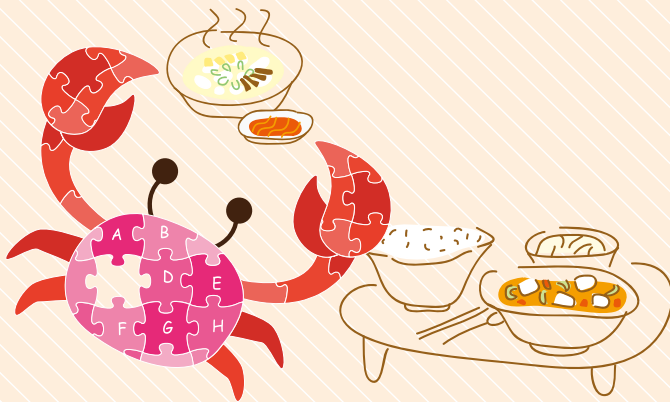
엄마! 이거 아세요?

당신이 살아온 삶 속에 불쌍한 이웃들이 있었고 그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한 끼라도 더 차려 먹여 보내려고 애쓰셨던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보고 자랐기에 이 딸은 당신이 자랑스러웠고 더 그립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따뜻한 나눔의 사랑 덕에 제가 오늘날 참다운 행복이 뭔지도 알게 되고 저 또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려고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엄마! 먼 훗날 당신과의 만남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많이도 보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도 먹고 싶었던 꽃게 한 마리의 사연도 다 이해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꽃게 밥상을 그리며 사랑하는 막내딸이





건강사회를 선도하는 맑고 밝고 훈훈한 원광대학교병원

밥 한 공기 똑딱!!

출근 기상 알람이 울린다.

아직 다 퍼지지 못한 몸과 반은 감긴 눈으로 거실문을 열면 익숙한 향이 나의 코 끝에 닿는다.

내 시선은 이미 거실 탁자 작은 텀블러에 머무른다. 아침 식사 준비와 함께 끓여낸 일명 건강 꿀차이다.

작년 늦가을에 생강, 대추를 직접 수확하시고 수삼과 함께 꿀과 설탕에 재어 만든 차이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차를 끓여 정성스럽게 내어 놓으셨다. 힘드시니까 그만 하시라고 해도 “이 차를 꾸준히 먹으니까 니가 시한 내내 감기도 안 걸리니 그거라도 어디나?” 하시면서 몸 약한 나를 걱정하시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아침을 준비하신 후에는 “요즘 들어 새벽잠이 많아졌다, 아침 먹고 출근 잘 하라” 하시면서 다시 방에 들어가 몸을 누우시는 그녀는 바로 나의 시어머니다.

15년째 한 지붕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고부지간이며 나는 그녀의 막내 며느리이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모든 가족을 놀라게 했던 둘째아이를 출근으로 인하여 시부모님댁에 맡기면서(물론 큰아들도 봐주셨다) 나와 시부모님과의 동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이가 어리니까 추운 바람 거치면 그 때는 니 집에 가서 살아라” 했지만 아직도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우리 부부는 그 언젠가의 분가를 생각하지만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직장 다니는 아들, 며느리 밥상 차림과 두 손녀를 돌봐주고 가사일, 농사일까지 전담하셨던 그녀는 그야말로 슈퍼우먼이었다. 걱정스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나의 두 딸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고 가사일로 직장생활에 지장 받은 일은 없었다. 야근을 하게 되는 날이 있으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에 신경써라”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셨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였다. 퇴근후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는 찌개에 넣을 두부가 필요하시다면서 아이를 나에게 맡기고 급히 슈퍼로 가셨다. 이를 지켜 보신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역정을 내셨다. “아이 보는 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봐야지,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나”, 어머니께서는 반박하셨다, “애미가 왔으니 당연히 맡기지 않느냐”, “애미가 지금 막 퇴근해서 왔는데 아기 상태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는 보던 이가 봐야 무탈하다” 난 중간에서 몸돌바를 몰랐다. 아버님,어머니 두 분의 주장은 다 맞는 말인데... 손녀딸에 대한 사랑이 넘치셨다. 옛말에 “일하는 공은 없어도 자식 키운 공은 있다” 라는 말처럼 어머니는 손녀 돌보는 일에 더욱더 지극 정성을 다하셔서 돌봐주셨고 식사 시간에도 며느리 밥 편히 먹으라고 아이를 안으시고 당신의 식사는 뒷전이셨다.

며느리가 쉬는 어느 휴일날!

어머니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밀고 계셨는데 아버님께서 “쉬는 날 편히 자야 되는데 청소기 소리로 며느리 잠 깬다”라며 당신 아내에게 핀잔을 주셨다 합니다. 농사일을 하셨던 부모님은 내가 밭에 나와 있으면 “너는 들어가라, 너는 못하는 일이다” 라며 손사래를 저으시면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셨다.

표현력이 없는 나는 어머니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어머니 막내며느리 참 무뚝뚝하지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 태생이 그런거 알고 있고 마음만은 따뜻하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나는 부모님 댁에서 그 분들이 주신 따뜻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던 6년전 대상포진을 앓게 된 아버님은 휴우증으로 고통스러운 통증이 동반되었고 결국엔 치매까지 오게 되었다. 밤낮을 구분 못하시는 아버님은 굳혀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깨우기가 일쑤였고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어머니를 비롯하여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셨다. 건강하셨던 아버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큰소리 한번 안 내시고 웃음으로 답하셨는데 이제는 아이가 되어서 어머니만 찾으셨다.

3년동안 이어진 아버님 투병 생활로 인하여 어머니께서는 감당하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셨지만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가족들 의견에도 한사코 마다 하셨다. 당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하셨고 함께 지내는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셨다. 이러다가 어머니마저 아프시지 않을까 우리 가족은 걱정이 되었다.

병세가 악화되고 병원에도 못 가시는 아버님을 보고 있으니 자식으로써 불효하는 것 같아 몇 번을 설득과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 후 결국 집근처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하였다. 병원 입소하는 날 남편과 어머니가 동행하였고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 남편을 아무도 모르는 낯선 병실에 놓고 오시기가 마음 아파하셔서 첫날밤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다.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남편과 어머니는 아버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으로 매일같이 찾아가셨다.

요양병원 입소 한 달도 채 안되어서 아버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어머님과 우리 가족은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나신 아버님에 대해서 한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자식으로써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으며 어머니는 자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배려심이 아닌가 싶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홀로 되셨지만 그동안 하셨던 당신을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계신다. 1년 반전 숨쉬기가 곤란하고 얼굴이 붓는 증상이 심해 진료를 봤는데 그 날 바로 입원하셔서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술을 받게 되셨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셨을까?” 함께 사는 자식에게도 아프다는 말씀을 아끼시는 어머니가 안쓰럽고 죄송스러웠다. 요즈음은 허리통증, 다리통증으로 걷는 불편함이 있어 답답해하신다. 귀도 잘 안들리고 밤이 되면 눈도 잘 안 보이신다 하신다.

그래도 철철이 농사지어 거둔 곡식과 열매, 채소를 자식들에게 보내시기 바쁘시다. 늘 그래왔듯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열심히 택배로 보내신다. 힘드시니까 그만 하시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주고 싶은 존재”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른다.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당신처럼 헌신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녀의 연세도 80이 넘었습니다.
인생을 떠나실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에 몇 년 전 작은 딸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 요즈음은 100세 인생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말이 기특했던지 어머니는 손녀딸 볼에 연신 입을 맞추십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버이 살아 생전 섬김을 다하라. 효도는 아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매일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기를...

오늘도 그녀는 아픈 허리와 다리를 지탱하며 퇴근하고 돌아온 막내며느리에게 무엇을 먹이면 살도 찌고 기운이 날까 하는 생각으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리십니다. 집에 들어서니 냄새가 가득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청국장 찌개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소박한 효도 아닐까요?

밥 한 공기 뚝딱 비웁니다.
잘~ 먹었습니다.
순자씨! 내일은 우리 외식합시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순대국밥 드시러 가요~~~





당신의 마음, 병원이 함께 합니다

심쿵하게 하는 올 어머니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로운 꽃향기가 천지를 진동하며 절정의 자태를 뽐내는 계절의 여왕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원광대학교병원에 투석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를 응원하고자 이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표현이 서투른 탓에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지금에서야 전하게 됩니다.

저는 강원도 두메산골 평창에서 나고 자라 1987년 20살에 난생처음 부모님 품을 떠나 이곳 익산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 학력고사 시절 시험을 망쳐버려 가고 싶었던 춘천교대 입학 포기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원광보건대학교 간호과에 들어가게 되면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난생처음 평창을 벗어나 객지에서 아는 친구도 없고, 외로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팠고, 항상 허전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데, 힘들었습니다. 1학년 학기 초에 과가 맞지 않고, 친구도 없어 학교 못 다니겠다고 울며 불며 어머니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애야,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울지마라!” “졸업하면 원대병원에 취직할 수 있으니 학교 다녀라” 하시며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께복쟁이 강원도 고향 친구들도 “학교도 많은데, 왜 하필 무섭고, 캄패 많은 이리로 가냐” 하며 말렸습니다. 1학년 때 낯설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이 흘러 친구도 생기고, 과에 적응되어 그 시간을 버텨 내어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1990년 2월에 기대하고 고대하던 원광대학교병원에 들어오게 되어 어머니는 많이 기뻐하셨고, 참 잘했다며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시며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올 큰딸이 원대병원 간호사예요”하며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3년, 어머니의 몸무게가 갑자기 34kg로 급격하게 빠져 딸이 다니는 원광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본 후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당뇨로 돌아가셨고, 외삼촌 세분과 이모 세분 모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올 어머니도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망막병증, 말초 신경병증, 고혈압, 만성 신부전이 생겨도 먼 거리를 마다하고 원대병원으로만 진료를 다니셨습니다. 2~3년 전부터 칼륨 수치가 6~7로 높아져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다며 신장내과 교수님께서 투석을 권유하였으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하겠다고 버티시다가 설득하여 큰마음을 먹고 재작년 9월에 눈물을 흘리며 평창에서 익산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습니다.

어느 날 만성 신부전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심박수가 갑자기 30회 이하로 떨어져 응급실로 들어가 치료를 받다가 죽음의 위기를 느끼셨는지 입원하여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고, 퇴원 후 지금까지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대병원에 투석을 다니시며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가끔씩 “올 딸이 원대병원 다녀 너무 좋다. 병원비도 혜택 받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딸아, 고마워” 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십니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하여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금도 투석을 다니시는 어머니께 응원의 화살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껏 제가 표현이 서투른 탓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 기회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변함없이 지지해 주신 엄마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젠 제가 엄마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늘 커다란 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에 계셨기에 크나큰 사랑과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늘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평생 다 갚아도 엄마가 주신 사랑, 은혜를 다 갚지 못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은혜에 효도로 보답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시간들을 앞으론 제가 엄마의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5월은 좀 더 애정을 담아서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따뜻하고 힘차게 시작해 보렵니다.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저의 엄마께 바칩니다.



“ 낮으실 제 리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뭉도록 고생 하시네. 하늘아래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배려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랴 ”



당신의 마음, 병원이 함께 합니다

나의 언니

언니!

나의 언니~

태어나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는데... 많이 오글거리고 무척 쑥스럽구만...

언젠가는 올 철들 날을 기다려도 흰머리가 나도록 가망 없는 나를 염려하신 덕인지...

41주년 개원기념일을 핑계 삼아 사람 노릇 해보네~

병을 고치는 병원이 인간도 만드네.

남들은 부모님 은혜 편지를 쓰느라 바쁠텐데... 나에게도 언니가 엄마인 거... 알지?

엄마가 급하게 하늘나라 가신, 하늘이 무너져버린 25년 전부터 언니는 우리 4남매의 세상 유일한 엄마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 나이 30살... 장녀지만 동생들을 이끌기에는 언니도 너무 어렸을텐데...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어?

그때 우리 집 상황이 참 막막했지?

이미 결혼해서 맞벌이하며 시부모님 모시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언니, 군복무 중인 큰 애, 한참 손길이 필요한 고3 막둥이...

누가 봐도 중심을 잡아줘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내가 해야만 하는 역할이었는데...

유난히 이기적이었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

이제야 말하지만, 그때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

엄마 없는 텅빈 집이 무섭고 싫었어...

곱지만은 않았을 시댁 눈치에도, 언니만 바라보는 위기에 처한 친정집과 장남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댁을 오가며 살았을

언니의 삶은 어땠을까... 가히 상상도 안되네... 아직은 어린 동생들을 다독이며 엄마 빈자리를 채워가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한 언니,

언니의 희생 덕분에 우리 4남매는 끝이 없어 보이던 어둠의 터널을 무사히 지나 졸업도 하고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각자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네.

지금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동기도, 분만휴가 말, 복직 날은 다가오는데 육아 고민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나를 대신해

언니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간힘을 쓰며 지켜냈던 직장까지 이직하며 언니는 친정엄마의 역할을 자처했었지.

동생의 원치 않는 이직을 대신했음에도 본인의 고뇌를 한 번도 내색한 적 없었고... 편안한 오늘의 삶이 동생들을 향한 일방적인 언니의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어지껏 모르고 살아온 거 같아...

우리 아이의 육아에 이어 둘째, 셋째 동생의 육아도 자연스럽게 떠안게 되었고 8남매의 다둥이 엄마로 혼이 빠진 매일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문득 문득 얼마나 서러웠어?... 젊은 나이에 유난한 8남매 키우며 가는 세월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청춘을 바쳐 애지중지 키운 언니 조카들도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고 어느덧 그토록 바라던, 언니의 손길 아니면 안되는 상황에서 모두들 벗어나 나름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데, 언니는 밤마다 찾아오는 영광의 허리통증으로 고생이 많지? 아직도 4남매 집집마다 김장은 물론, 철철이 맛깔나는 반찬에 간간이 들러 집안 대청소에 장모, 시모 역할 한다며 집집마다 보약까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우렁각시 역할하느라 참 고생 많다...

부탁이야~

충분히 넘치게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언니 몸도 돌보며 살자...

나는 언니 덕분에 50넘어도 김치도 못 담그는 모자란 사람이 되고 말았어.

우리 아이들도 키워준 엄마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남아준 나한테는 한 번도 안하는 공약을 키워준 엄마를 위한 공약은 넘쳐나네.

늙으면 고생 안하겠어... 우리 애들이 언니 노후는 확실히 책임진다네.

언니 허리통증 때문에 형부도 걱정이고 언니 딸내미가 모두 내 탓이라며 날 엄청 원망하고 있어.

이제 언니만 생각하며 살자.

우리 4남매가 고마움 잊지 않고 잘 살게~ 이제 걱정마.

언니!

진짜 고맙고 미안해.

나이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요즘, 부쩍 엄마 생각이 나곤 한다.

내 나이가 어느새 돌아가신 엄마 나이가 되었네...

고마워~ ♥



당신의 마음, 병원이 함께 합니다

결에 계실 때 더 사랑할게요

세상에 계신 모든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한 말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계신 많은 부모님 중 작은 일원인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첫 사랑이었던 저희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고 26살, 29살에 오빠와 저를 낳으셨습니다. 타지에 시집와 두 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슈퍼를 운영하여 슈퍼 쪽방에서 쪽잠을 자며 열심히 사셨습니다. 눈치 없이 고집이 세던 저는 매일 밤 울며 떼를 쓰곤 하였고,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다른 식구들이 깨지 않도록 저를 얹고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할 것 없이 동네를 하염없이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작은 사고 때문에 제 가족의 전부였던 슈퍼에 불이 난 그날에도 어머니는 온통 저희 걱정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나이쯤이었던 그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의 집 설거지부터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는 한정식집 주방까지 가리는 일 없이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일하셨습니다.

삶을 사는 동안 날마다 행복할 수 없듯이, 우리 집에 찾아온 불행에 가족들이 익산과 안산에 각각 떨어져 살아가는 동안에도 엄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등비등했던 노력이 무색하게도 2010년경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오빠의 건강악화로 신장 투석을 진행해야 했고, 그때 처음으로 강하고도 큰 존재였던 엄마의 눈물을 처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가장 힘들 오빠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끝에 오빠에게 기적적으로 신장이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0년 정도가 흘렀지만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술실로 오빠를 들여보내고 엄마 아빠 저 3식구가 수술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긴긴 시간 동안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얼마나 기도를 하였는지... 그날의 부모님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이식은 실패하였고 다시 투석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빠의 꿈을 위해 오빠도 노력하고 그 뒤에 엄마의 든든하고 끊임없는 뒷받침으로 오빠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오빠와 저 둘 다 학원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 욕심이 많던 저는 학원 다니던 친구들의 프린트물을 빌려 복사해 공부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 3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며 버스를 야끼고, 동네 분리수거장을 돌아다니며 공병을 주워 팔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절의 경험들이 인생의 큰 공부가 되어 지금 어엿한 성인으로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의 강력한 추천으로 간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고, 어머니의 뒷받침과 응원으로 지금은 어엿한 9년 차 간호사로 원광대학교병원에 한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며 우리 가족에게도 안정이 찾아오나 했던 2015년의 어느 여름날 우리 가족의 하늘이자 큰 나무 같으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그 충격과 슬픔은 감히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람의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가장의 몫까지 해내야 했던 어머니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

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기대어 슬픔을 덜어내곤 하였는데 그런 어머니의 슬픔은 누구에게 덜어내었을까?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슬픔은 너무나도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은 저희 어머니는 60이 된 나이에도 매일 일을 하십니다. 그 작은 체구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나날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무 아들에 간호사 딸이면 난 행복하다. 이거면 됐다.” 하십니다. 엄마를 위한 삶은 없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의 삶 뒤엔 칼질을 너무 많이 하셔서 휘어진 손가락과 질게 내려앉은 주름살뿐인데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마음인 걸까요? 지금도 어머니는 나이트 근무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저에게 새벽부터 일어나 따뜻한 밥을 차려 주십니다. 힘드니 더 주무시라는 말에도 이게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엄마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큰 마음을 엄마의 큰사랑은 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크게 느꼈습니다. ‘내 곁에 계실 때 잘해드리자’ 근데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네요. 글을 쓴 지금을 시점으로 더욱 잘 해 드려야겠다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31살이 된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여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도 우리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세상에 계신 모든 부모님의 사랑이 크듯이

“아버지” 딸을 맞이하여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께

사랑의 반이라도 돌려 드려보면 어떨까요?



나의 영원한 공주님

엄마 안녕 ~ 난 엄마의 꿈 희망, 큰 딸이야

벌써 내가 27살이 되고 간호사 4년차가 됐네 시간이 진짜 빠르다.

4년이 되도 일 끝나면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엄마는 어떻게 나랑 동생을 키우면서 매일 일을 다녔는지 정말 존경스러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키워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

요즘은 엄마랑 다니면 언니냐고 물어보는데 걸으면 싫은척하지만 엄마가 웃을 때 속으론 나도 같이 좋아.

내가 중2병에 걸려서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어서 매일 방황할 때, 나의 성격과 성향을 알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권해주고 신규 간호사로 취직할 때도 힘들면 언제든 엄마 품으로 돌아오라고 항상 믿고 응원해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하면 바로 정신 차리게 되고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생겼어. 그래서 대학교도 4년 장학생으로 다니고 취직해서도 적응을 잘한거 같애 나의 이런 끈기는 엄마를 닮았어.

27년 살면서 엄마보다 끈기 있는 사람 못 본거 같애. 어릴 땐 엄마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작고 귀여워서 내가 지켜주고 싶어.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편지에 다 적지는 못하겠지만 요즘 TV 보면 아동학대, 폭력, 살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엄마의 위대함이 더 느껴져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출근을 해. 엄마는 21살에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 20대 청춘에는 항상 내가 있었네.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눈물부터 나면 불효녀라고 했는데 내가 엄마 떠올렸을 때 웃음이 나올 때까지 효도할 테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해줘!

사실 대학교 때 엄마가 외박도 못하게 하고 밤 10시만 되면 전화와서 취직은 무조건 엄마랑 제일 먼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인천으로 취직하고 자취한건데.. 한 달 있어보니까 나는 엄마 없이는 안되겠더라고 그래서 2년 채우고 또 엄마의 권유로 익산 내려오게 됐는데 엄마 옆에서 엄마가 차려준 밥 먹어서 너무 좋아. 지금 익산 내려온 지 7개월 됐는데 아침마다 매일 출근시켜주고 엄마랑 퇴근시간 겹치면 퇴근도 같이 해줘서 정말 고마워.

빨리 운전 연습 열심히 해서 출퇴근은 나 혼자 할게~ 올해까지 운전 마스터 하겠어 꼭!

엄마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 하고 내가 엄마할게 그래서 엄마 완전 행복하게 해줄게.

그니까 다음 생에도 우리 가족하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꽃길 걷게 해줄게 아프지 말고 나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해 알려줘 ♡♡♡

부모님! 사랑합니다.

지난 2월 19일은 어머니의 칠순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친척분들은 초대하지 못하고 직계가족만 단촐히 모였습니다.

집에서 생신상을 대여하여 사진도 찍고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도 낭독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나란히 앉아계신 두 분의 얼굴을 바라보니,
네 딸들 키우시느라 고생하셔서 생긴 주름살이 가득하더군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아버지의 축하인사!
본인을 만나 고생만 한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하셨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센스 있는 멘트까지 더하셨죠.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에 딸들 모두 울컥했습니다.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 딸들이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부모님에겐 항상 걱정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나도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 수 있을지....,”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듯 나의 자녀에게 무한사랑을 베풀 것이고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걸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안부전화도 자주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찾아뵙는 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오랜만에 찾아뵈면 부모님의 환한 미소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첫째 딸 올림

나는 오늘도 엄마에게 위로를 받는다.

나는 오늘도 엄마에게 위로를 받는다.

초등학교 다닐 적... 우리 엄마,아빠보다
더 젊은 엄마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철이 들었을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를 느끼면서
엄마아빠가 존경스럽기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나를 얻어 기쁨이 넘치고도 남았을 텐데
자제와 절제는 철학자 수준이셨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열정의 온도만큼은
세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없었다.

딸의 일에는 당신의 부끄러움도, 고생스러움도 대수가 아니었다.
손주가 태어나자 세상을 다 기진 듯 기뻐하셨고
사랑은 넘치도록 남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주셨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나도 내 자녀에게 주리라
내 부모의 철학과 사랑을~

병석에 계시는 엄마를 보고 온 오늘.
엄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에 올게요~ 했더니.....
당신 몸도 겨누기 힘든 그 와중에
“고생은 조금만 해라~” 하신다.

누가 울 엄마를 아프게 한 거야~~~~
세월이 야속하다.

“슬픔을 눈물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사랑을 깨치는 줄 아는 까닭에
견잡할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를 것이다.” (한용운님의 침묵 中)

병석에 계셔 비록 많은 교감을 나눌 수는 없어도
내가 부모님에게 배운 사랑을 가족과 인연에게~
그 따뜻함으로 메마른 가지에도 새순도 나게 하고
봄꽃도 피울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꽃으로~~
삶의 아름다움으로 피울 것이다.^^

나의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조용히...아름답게...
물만 주고...바라만 봐 주었는데...
언제 피었는지도 모르게...
곱게 피어있다.^^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서 얼어버릴까...
햇빛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거실과 베란대를 오고 갔는데
정성을 알았던지 다소곳이 수줍게 피었다.^^



자연의 이치는 큰 지혜를 준다.

아빠의 뼈를 빌어 태어나고
엄마의 정성으로 자랐다.
부족함에 원망도, 미워도 해보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쏟으신 정성으로...
나 또한 "주정숙 꽃"으로 피었다^^
나는 내 부모님께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을까?

씨앗이 없었더라면...
어찌 아름다운 꽃이 있겠는가!!!

내가 딸로서 사랑받던 그 시절이
그립고...그립고...그립다.



외롭게 떠나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바쁘더라도 전화 한 번씩 해라! 엄마가 궁금하잖아.”

“엄마!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요!”

통명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곧바로 끊어버린다. 영원한 내 짝사랑인 내 분신, 자식과의 대화다.

“보고 싶다. 나이 먹으니 왜 이리 너희들이 더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 틈만나면 전화해서 보고 싶다 타령을 할 때면 “지금 바빠요. 아빠처럼 제가 한가한 줄 아세요?”라며 5분조차도 할애하지 않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빠와 나의 대화다.

평소 약주를 즐기시고 약주를 드시면 말씀이 과하셔서 그런 아버지를 매우 못마땅해 하시는 엄마 등상에 살아생전 번번히 술상 한 번을 차려드린 적이 없는 딸! 생각해보니 엄마하고는 여기저기 봄꽃놀이도 함께 가고 여행도 같이 다녔지만 아빠하고는 그런 기억이 없다. 늘 그 자리에 계실 것으로 생각했었다. 누구보다도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당신의 외로움을 담배와 술로 달래셨기에 결국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후두암으로 세상을 등지신 지도 벌써 5년째, 세월이 갈수록 이 불효여식은 아빠가 그립다.

부모 생전에 부모는 자식한테 못 해준 것만 기억하고 자식은 부모님께 잘해준 것만 기억하며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부모한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후회한다는데 나는 살아생전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잘 해 드린 기억이 전혀 없이 못해드린 것만 기억나는 그야말로 못된 딸이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생활하셨으면서도 착하기만 하셔서 사람들에게 속임도 많이 당하시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70세까지도 삶의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의 성실함을 본받아 세 자녀 모두 각자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 하셨다.

친정에 갈 때마다 이름을 부르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던 모습이 그림고 자식들과 얘기하고 싶어 늘 다니시던 마실도 미루시고 뽀짝 뽀짝 다가오시며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시던 모습도 그림기만 하다. 왜 그 때는 아빠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조차도 그렇게 궁색했을까? 내 자식이 커가고 내 나이가 부모 나이가 되어 갈수록 나는 점점 부모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운명하시기 얼마 전 병상에서 나는 내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혼잣말처럼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빠한테 내 얘기를 직접적으로 말한 건 그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빠는 가만히 들어주시고는 “그럴수록 더 잘해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아빠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럴수록 더 잘해줘라”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나는 오늘도 내 마음에 깊이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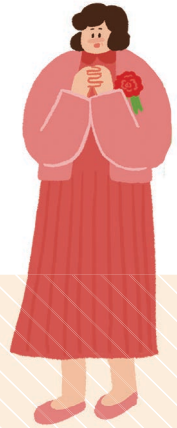
옛날에는 중요한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키우던 닭을 잡아 대접하던 시절이었다. 겁이 유달리 많은 우리 아빠가 살생을 두려워하는 통에 그 일은 마지못해 엄마 몫이었다. 그토록 겁이 많은 분이 뭐가 급했는지 곁에 자식들도 아내도 없이 혼자서 쓸쓸히 임종을 하셨다. 쓸쓸하게 성장하셨는데 죽음마저도 쓸쓸하게 맞이한 우리 아빠를 생각하며 나는 이 좋은 봄날에 또 눈시울을 적신다.

오늘도 나는 아빠가 내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럴수록 잘 해줘”를 실천하려 마음을 다진다.

“아빠!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끝까지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에게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초록빛으로 물든 가로수가 싱그럽고 꽃구경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짧은 봄이 지나면 금세 더워지겠죠?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시집간 딸들 걱정엔 한숨짓고 계시지는 않는지. 5남매 키우시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시고 내 식구보다는 남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벗고 잘해주는 아빠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셨던 우리 엄마. 개방적으로 키우시는 아빠와는 달리 엄마는 예의바르고 남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반듯하게 키우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때의 여러 가지 간섭이 왜 그렇게도 싫었는지.

그것이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대들고 짜증냈던 일을 생각하니 엄마에게 많이 미안해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던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엄마 품을 떠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가슴 깊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걸 보니 저도 이제 어른이 된 걸까요?

이제 한숨짓고 걱정하는 날보다 웃음으로 보내는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년 전, 헛것이 보이면서 아빠의 부재로 인한 우울증에 마음이 약해지고 기력도 쇠해져서 응급실까지 가던 날 얼마나 놀랐는지. 주렁주렁 매달린 영양제며 치료제와 모든 걸 놓아 버린 듯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관심 있게 살피지 못한 죄책감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의지가 필요했을 시기에 엄마와의 대화가 필요했었는데. 삶의 끈을 놓지 않고 회복되었을 때 정말 뭉클한 듯이 기뻐요. 엄마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자식에게서 찾으셨고, 우리 엄마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엄마의 사랑을 절절히 느낄 만큼 다 컸으니 이제는 걱정근심은 날려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결혼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엄마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엄마가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 엄마의 존재는 위대하고 절대적입니다.

엄마!

웃으세요.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사세요.

자식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버리세요.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받았으니까요.

자주 아이들 데리고 찾아뵙게요.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를 사랑하는 딸 올림

나이 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고 기억하고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

오빠랑 싸워도 내가 혼나고, 동생이랑 싸워도 내가 혼났던 나의 어린 시절. 내복만 입고 쫓겨난 적도 많고 회초리 자국에 멍들었던 엉덩이와 종아리에도 잠이 들면 살짝 들어와 연고를 발라주셨던 우리 아빠. 지금은 이브닝 퇴근하고 들어오는 내 모습을 기다리다 주무시는 아빠에게 내가 이불을 덮어드린다.

혼자 여자인 탓에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나도 여자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언니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같이 인형 놀이를 하는 것도 언니의 예쁜 옷을 물려받는 것도 그냥 부럽기만 했다. 인형 놀이 보다는 딱지치기, 카드놀이가 익숙했고 아파트 운동장에 나가 놀아도 모두 다 오빠와 남동생의 친구들. 그래도 제일 좋았던 것은 나는 늘 새 옷을 입는 것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부럽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는 엄마는 나에게 언니, 여동생, 친구의 역할을 모두 다 해주신다. 가장 좋은 역할은 간호사 동료로 엄마와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지금은 더 좋은 점이 많지만, 어릴 때에는 너무 싫었다. 초등학교 나의 소원은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간식을 해주시는 것.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엄마는 친구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잘 다녀왔냐고 간식 먹으라고 하셨다. 우리 집은 베란다에서 키웠던 햄스터, 병아리, 금붕어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또 부러워서 매일 놀라웠다. 26살이 되어서도 엄마에게 엉덩이를 토닥토닥해달라고 한다. 아마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어 있을 엄마에게도 나는 받고 싶을 것이다. 학교가 끝나고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이 없어서 집까지 비를 맞고 돌아온 적도, 운동회 날에도 엄마, 아빠가 모두 못 오시면 내심 서운하고 속상하고 부모님이 모두 온 친구들만 계속 쳐다보고는 하였다. 저녁이면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먹는 것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억해보면 모두 다 소중한 좋았던 시간들이다.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는 것 같다.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를 꼭 다시 데려가 주셨던 엄마, 맛있는 집이 있으면 우리와 꼭 함께 먹기 위해 먼저 전화를 해주시는 아빠.

어릴 때에는 몰랐다. 일을 하시는 부모님은 너무 바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먼저 약속을 잡았던 나.

부모님 보다는 친구들이 익숙해졌고, 자고 일어나면 침대와 책상 위에 놓아져 있었던 용돈.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다. 부모님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고 싶어 했던 것을.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교대 근무를 하는 나는 친구들이랑 시간 맞추기도 많이 힘들어졌고 그런 탓에 취미생활을 하면서 휴일을 보내지만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매우 적은 것 같다. 막둥이는 군대에 있고 엄마, 아빠, 오빠, 나 모두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에 1주일에 가족 모두의 얼굴을 보는 날이 시간을 다 합쳐도 하루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우연히 운이 좋으면 이브닝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자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잘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도 괜히 한 번씩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숨을 잘 쉬고 주무시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젠 내가 그들의 건강을 더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시기.

한방병원 이벤트 행사 때마다 꼭 구매했던 공진단. 엄마가 요새 건강식품을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다. 매년 어버이날 선물을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엄마가 콜라겐을 사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잼싸게 알아보고 구매까지 하였다. 아빠는 분명 아직

건강하다고 드시지 않겠지만, 이젠 어렵었다. 아직은 본인 체력이 죽지 않았다고 하시면서도 가끔 날 업어주시지만, 작년에 아빠 건강검진을 해드리면서 아빠도 많이 늙었다는 걸 느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께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게 많았지만, 지금은 항상 건강하고 오래 오래 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하시는 것, 원하는 것만 찾아 해드리고 싶고, 더 좋은 딸이 되어드리고 싶다. 마음은 매일 품고 살지만 잘 되지 않아 속상함이 더 큰 내 마음. 30대인 나는 우리 집에서 성격이 제일 예민하다. 자고 있을 때에도 조금만 시끄러우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셔도 먹기 귀찮아 먹지 않고 짜증과 불만 섞인 행동, 예민한 태도에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헤아려주시고 맞춰주시는 나의 부모님.

욕심이 많은 나는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꼭 사야했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꼭 배워야했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꼭 가야했다. 3남매 자식 농사 중 둘째 농사가 아마 꽤 힘드셨을 것이다. 오빠와 동생 사이에서 내가 제일 사랑받고 싶어서 때때로 쓰고 엄마 아빠의 사랑은 모두 내가 독차지해야 했던 우리 집의 히틀러였다.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드리고 싶었고 하루 빨리 효도하고 싶었다. 원래는 꿈이 강력계 미녀 형사였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간호학과로 진학하게 되었고 간호사가 되면서 엄마를 더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 병원 면접을 봤을 때에도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는 질문에 나는 10억을 준다 해도 다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나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감사함을 내가 보답할 차례이다.

요즘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낀다. 부모님과 나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달라 가끔 답답함을 느끼면서, 우리 부모님도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을 또 인지하게 된다. 그러다 괜히 미안해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솟구친다. 우리를 낳고 키우면서 본인들의 삶에서 부모로서의 삶으로, 부모님의 노후는 내가 되어드릴 것이다.

우리 엄마아빠의 딸이라서 너무 행복하고, 부모님께 전하고 싶다.
좋은 일은 생기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힘들었던 과정은 내가 한층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을.

늘 함부로 하게 되는 사람, 늘 멋대로 하게 되는 사람, 늘 투정부리게 되는 사람, 늘 미운말만 주게 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을 미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님이라 죄송합니다.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 늘 가장 가까이에 있어주는 사람,
늘 내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늘 나를 솔직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 그 하나뿐인 사람이 부모님이라 감사합니다.
하필 그 하나뿐인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라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2021. 04. 25 세상에 딱 하나뿐인 엄마, 아빠의 딱 하나뿐인 예쁜 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랑스 작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 마들렌은 홍차에 적신 과자냄새를 맡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이렇듯 특정한 물건과 공간, 그 고유의 향기에서 추억을 떠올리는 현상을 작가의 이름을 따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살면서 추억에 빠져들게 하는 향기와 공간이 있다. 그것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어느 날 공원에서 맡은 싱그러운 풀냄새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이른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맡은 구수한 빵 냄새일 수 있다. 내게도 마찬가지로 늘 같은 추억에 빠져들게 해주는 특별한 향기와 공간이 있다.

초겨울 이른 새벽의 찬 공기를 맡을 때면 늦잠을 자서 아침도 거른 채 등굣길을 나서는, 혹여나 늦을까 찬 새벽바람을 맞으면서도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고등학생 때의 내가 나타난다. 집 앞 작은 천가의 산책로를 걷다 아카시아 꽃 향이 스며들면 첫 연애로 부푼 마음 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대학시절의 내가 떠오르고, 여름 장마철 어느 덥고 습한 날 퀘퀘한 곰팡내가 올라오면 고시원 단칸방에서 오랜 고시 생활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며 복받친 감정에 엉엉 울고 있는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렇게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 언제나 함께 기억나는 분들이 있다. 늦잠을 자서 등교를 서두르는 내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뜨고 가라며 직접 밥공기를 들고 쫓아다니시던 어머니. 집 앞 산책로에서 함께 걸으며 여자친구의 이런저런 자랑을 늘어놓아도 그저 웃으시며 이쁘게 잘 만 나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수년간의 고시 생활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으며 내 한계에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 때 같이 울어주기보단 널 믿는다며 힘을 주던 아버지. 그 이른 새벽 나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해놓고는 학교에 늦는다며 먹지도 않고 나가는 내가 미울 법도 한데 어머니는 왜 화내지 않고 안쓰러워만 하셨는지, 본인에겐 무뎌뚱하기만 하던 아들이 여자친구 자랑은 신나서 늘어놓았을 때 서운할 법도한데 왜 즐겁게 웃으며 응원만 해주셨는지, 아버지는 좌절하고 힘들어하던 내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기보단 왜 내가 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

수원과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 연고도 하나 없는 이곳 익산에 나 홀로 내려오게 되자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고 그런 두 분께 드린 말 씀이 있다. 내가 내려가서 연락도 없고 수원에 자주 오지 않는다면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집에 연락 자주하고 주말마다 수원에 돌아오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더 걱정하셔야 한다고... 평소 내가 부모님께 연락도 잘 하지 않는 요즘말로 '불타는 효자'이기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꺼낸 얘기였으나 혹여 내 말이 맞다 치더라도 부모님 마음은 매일 보고 매일 연락하고 싶다는 걸 안다. 그러나 웬지 또 연락하고 사랑을 전하기에는 쑥스럽고 민망하기도 한 것이 내 마음이다.

하지만 그런 쑥스럽고 민망한 마음을 이겨내고 이번 주말에는 맛있는 소고기를 사서 부모님 댁에 가보려 한다.

얼굴보고는 말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말이다.

늘 같은 추억에
빠져들게 해주는
특별한 향기와 공간

엄마는 그래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잔잔한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오는 심순덕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마음이 먹먹해졌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속에 어린 시절 내가 바라보았던 어머니를 계속 떠올렸다.

당신의 배고픔보다 나의 배고픔을 더 걱정하셨던 어머니! 나를 위해 손이 닳도록 밤을 새워가며 편물을 만드시던 어머니! 사춘기 시절 심술부리며 속을 썩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어머니! 내가 엄마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준 당연한 모습이 이렇게도 가슴 아프고 먹먹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태어난 시절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일터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던 때였다. 그래서 고학력을 갖춘 여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형편에도 7남매 모두를 공부 할 수 있게 키우셨고 공부만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여기셨다. 더욱 이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공부하지 않은 여자는 무시를 당할 수 있으니 여자도 잘 배워야 해”라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일제 강점기 시절 초등학교 졸업을 하시고 모든 선생님들이 장학생 추천에 중학교 진학을 권유했지만 ‘공부는 남자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외할머니 단호한 생각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분 이셨다. 그래서인지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아들이든 딸 이든 모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철학이 확고하셨고 모든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떼게 하시고 구구단을 외우게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조기교육을 시키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공무원인 남편의 적은 수입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먹고 생활하기도 빠듯 한 살림에 7남매 가르치기는 너무 버거우셨을 것 같다. 그러나 철이 없던 나는 공부하기 싫다며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고, 가난한 집안형편 을 돕겠다며 학교 대신 취직을 하겠다는 셋째언니를 보며 ‘공부가 네 살길이다’라며 불같이 화를 내시며 까지 공부를 시키셨다. 이런 어머 니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거치며, 세월이 지나 우리 7남매들은 모두 대학을 마칠 수 있게 되었고 교직계, 의료계, 공무원 등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헌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나 또한 간호대를 졸업한 후 어엿한 간호사로 전문인이 되었다.

여자도 배워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역량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셨던 어머니의 철학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이 너무도 감사하다.

지금 우리 어머니는 꼬추처럼 허리가 휘어있고 점점 처지는 눈과 깊은 주름을 가진 모습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자랄 때는 허리도 꼳꼳하 셧건만 많은 허드렛일을 하시다보니 허리가 휘어져 지금은 주무실 때도 구부려야 편하시다고 하신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늘 투덜대고 말대꾸하며 속을 무던히도 썩였던 내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저며온다.

풍족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홀로 꾸그려 앉아 밤을 새워가며 편물을 짜셨다. 편물은 우리 집안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넉넉히 이 어나갈 수 있는 수단이었다. 편물을 하며 들어온 수입은 적지만 우리 남매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었고 아주 좋은 옷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손수 절어주신 속옷들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비교 해 보면 약간 어색하기만 했던 옷이어서 교복을 입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 그런 마음을 아셨던 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에 는 한두 푼 모으신 돈으로 의상실에 가서 교복을 맞춰주셨다. 교복은 너무도 품이 나고 내가 정말 멋쟁이가 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넉넉하

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던 채움들은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고 행복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가 누린 그 행복이 어머니께 더 힘든 노동과 절약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우리 7남매를 반듯하게 키우신 땃가로 굽어진 허리와 곳곳에 아픈 몸을 남기셨다. 특히, 굽어진 허리는 수술로도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기만 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자녀들의 탓으로 돌리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보리밥에 김치밖에 줄 수 없었던 형편과 예쁜 옷을 사주는 대신 만들어 입혔다고 미안해하신다.

94년 나는 첫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딸을 낳으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할 때도 많았지만 서럽고 슬플 때도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두 남매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벅차고 힘든데, 7남매를 키웠던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훨씬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7남매 모두 비뚤어 지지 않고 훌륭하게 키워내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도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같은 멋진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여전히 부모님 속을 썩이는 딸이다.

2013년, 갑작스런 유방암 진단을 받은 나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다. 어머니는 이런 나의 회복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굽은 허리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병원에 찾아오셨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기도로 나는 회복되었고 완벽한 건강 상태는 아니지만 건강한 몸으로 복직하여 직장에 나가고 있다.

우리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우리 딸이 살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니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걱정만 드렸던 것에 너무도 죄송하기만 하다.

아버지는 17여 년 전 천국에 가셨고 이제 구순을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만 아파트에 혼자 기거하고 계신다. 자녀들의 안부전화에도 늘 자식 걱정이 먼저인 어머니시다. 내가 괜찮다는 말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나서야 이내 걱정이 사라지신 듯 웃으신다.

부모님 은혜는 내 평생 갚을 수 없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동안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오래오래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내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을 사랑스러운 우리 두 아이와 미래의 손주, 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이
너무도 감사하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엄마! 엄마! 나예요!

꼭 이런 날이 되어서 편지를 쓰는 거 같아 죄송해요! 평소에 마음 표현을 더 많이 할 걸 하는 마음에 부끄러움이 크네요. 이번 기회에 편지를 쓰면서 엄마 생각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내내 눈이 아플 정도로 많이 운거 같아요.

철없던 사춘기 때 이유 없이 원망했던 엄마, 결혼 전 새로운 삶에 들떠 있었지만 마음 한 켠 항상 그리운 우리엄마, 결혼 후 항상 뒷바라지 해주고 날 기다려주신 우리 엄마. 이제 제가 자녀를 여럿 낳고 키워 보니 제가 느끼는 우리 엄마는 큰 산이고 바다인거 같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장녀라서 가족을 많이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제 지난날과 엄마의 지난날을 생각하니 눈물이 한없이 나왔어요. 엄마의 깊은 희생과 배려에 무뎠던 장녀가 오늘은 용기 내어 말할게요. 엄마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문득 젊은 우리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그 속에는 너무 곱고 건강한 젊은 우리 엄마가 있었고, 우리엄마도 좋은 때가 있었고 한창때가 있었는데 가는 시간과 세월이 참 아속해요.

지금은 어느새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리고 목주름과 고생한 우리엄마 얇아진 손을 물끄러미 보니 마음이 요즘에는 더욱 아프고 너무 미안해요. 나 어릴 때 젊은 우리엄마를 한번 진짜로 만나고 싶다는 상상을 해보았는데 그러면 제가 엄마에게 철부지 사춘기시절 속상하게 하고 잘못하고 부족했던 것들 만회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진첩을 덮으며 저를 키워주신 38년의 세월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걸 더욱 알게 되었어요. 내가 표현은 많이 안 해도 때로는 엄마와 다투고 투덜대지만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사랑해요. 엄마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런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입사한지 약 11년 동안 예쁜 4명의 딸들을 낳고 그때마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시고 4명의 손녀들 다 전부 키워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신 고마운 우리엄마!! 밤낮으로 교대로 하는 일 쉽지 않다며 매번 건강 챙기라며 걱정해주시고 반찬 떨어지기 무섭게 냉장고에 채워주시고 지금도 아이들 학교 등원도 해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도움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정말 감사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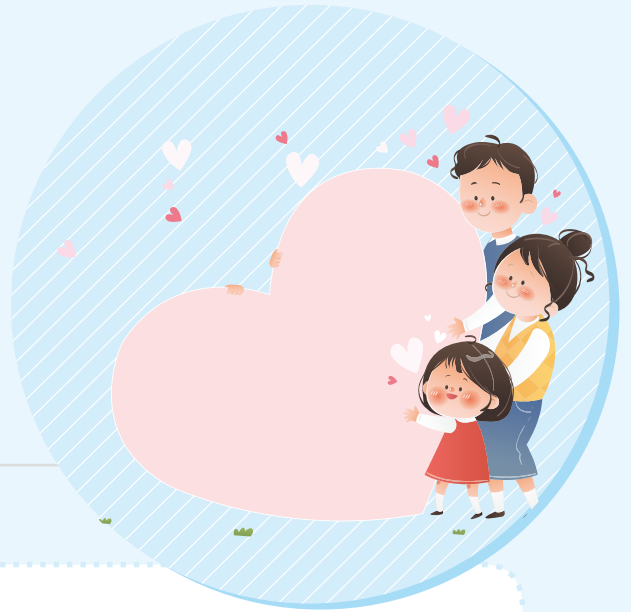
사랑하는 우리엄마! 요즘 허리가 안 좋으니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가볍게만 산책하세요. 그리고 만약 힘들고 고민하거나 복잡한 일이 있으면 이제 진짜 엄마가 된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엄마 손 꼭 잡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안아주고 싶어요. 엄마도 엄마가 가끔 보고 싶다고 했죠? 보고 싶는데 못 보면 어떤 마음일까? 난 엄마가 보고 싶으면 전화를 해도 되고 바로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데 엄마는 일찍 외할머니 떠나보내시고 마음 아프셨잖아요. 저는 엄마가 언제까지나 제 곁에서 4명의 손녀들이 결혼해서 증손녀까지 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제 옆에서 지금처럼 아직 부족한 저를 뒷바라지 해주실 거죠?

건강하셔야 돼요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2021년 4월 25일 장녀 올림

든든한 버팀목, 나의 부모님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이렇게 기회를 맞아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올립니다.
한 장의 편지에 도무지 담아지지 않는 제 마음을 이렇게나마 작은 종이 한바닥에 담아봅니다.

한 평생 밤낮으로 일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부모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가는 부모님의 귀중한 사랑을 저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기만 하였습니다.
철없는 속스러움과 부끄러움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하는 못난 아들을 감싸주시는 부모님
께 한없이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저와 함께 아파하고 웃어주신 두 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
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님 중에서 두 분을 만나게 된 것은 제 평생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유일하고 지속
적이어서 깨닫지 못했던, 쉽게 여겼기에 더 소중한, 가장 높았던 하늘보다 더 높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평생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무한한 사랑에 그저 부모님은 한없이 강한 분이랴 생각했습니
다. 늘어나는 부모님의 흰머리는 자연스런 세월의 훈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본 부모님 얼굴의 깊은 주름이 제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려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만 같은 아버지의 듬직한 어깨와, 일상의 고단함과 걱정을 보여주는 증거인양 배
겨버린 굳은살이 야속하기만 한 손은 저에겐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
로 여기시며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너무 적음에 제 마음이 애뜻해집니다.

때때로 일상에 지쳐 피곤한 날이면 집으로 돌아와 투정을 부리며 온갖 하소연을 털어놓아도 모든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어머니의 넓은 품과, 제가 늦게 마치는 날이면 밤늦게 까지 기다리시며 저를 걱정해주시던
어머니의 잔주름은 사랑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항상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시는 어머니께 집안일에도 모자라 저에 대한 걱정까지 얹혀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제 나이가 늘어난 만큼 부모님의 굽어가는 어깨위에도 짐의 무게가 한없이 쌓여만 갑니다.
나이의 테두리처럼 굽어진 손, 터버린 손끝에 저의 욕망을 달아놓기에만 연연했습니다.
커가는 제 모습 뒤로 줄어드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음을 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단지 어렸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것이 천근만근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야만 하는 것도 모르고 쉽게만 생각했던,
부모님의 채찍질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서 어른이 되기만을 바랐던 철없던 제 모습이 참
으로 한심해집니다.

그동안 어버이날에만 늘 똑같은 감사의 말과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효도로 부모님의 끝나지 않은 사랑에 보답하
려했던 제가 이제야 진정한 효에 대해 조금이나마 깨우치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한없이 받기만 하는 사랑에 절
반도 보답해드릴 수 없는 부족한 것이 많은 자식입니다. 어찌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해 말없이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채찍질을 해주셨던 사랑이 점차 어른이 되면서 그 무엇보
다도 아름답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어버이날, 문득 카
네이션을 바라보면 이런 깨달음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부모 속을 다 알리 없는 철없
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떼어낼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초 긍정 권여사



엄마!!!

2020년 온 천지가 형형색색의 봄꽃으로 한창 뽐을 내고 있는 4월의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 4월은 형형색색의 봄꽃들은 변함은 없는데 우리 엄마 얼굴은 수십만 가득해 내 마음을 아리게 하네. 아빠 돌아가신 빈자리는 하나뿐인 당신 아들이 너무 훌륭히 채워줘서 우리 엄마를 아빠가 안 계셔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내 동생의 빈자리는 너무 커서 우리 네 자매와 사위, 며느리, 손자들이 채워줄 수가 없네.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이 초조함과 걱정스러움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 슬프게 웃는 얼굴로 바뀐 우리 엄마!!!

어려서는 철이 없어, 성장해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느라,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어른, 아이들을 챙기느라 항상 엄마는 뒷전이며, 힘들 때 찾아 위안 받는 대상이었는데, 내가 아이를 키우며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엄마가 나한테 보내준 무한 사랑과 기다림과 믿음이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고 있어, 엄마한테 당연한 거라 알고 받기만 한 사랑을 엄마가 아닌 내 자식들한테 돌려주는 것조차도 힘겨워 하면서 말이야. 이번 기회를 통해 말해볼까 “엄마 고맙고 사랑해”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효도한 거는 딱하나 있지 우리 세 딸을 엄마 손주로 낳아 준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터 혼자 있는 할머니랑 같이 생활하며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며,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다니며 할머니를 잘 챙기는 우리 첫째, 할머니 혼자 적적하니까 전화라도 자주 한다는 우리 둘째,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는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다는 우리 셋째까지 우리 아이들의 1순위가 외할머니 인거는 다 엄마가 나보다 더 꼼꼼하게 아이들에게 무한 사랑을 보내기 때문인 거 같아. 11명 손주 모두가 할머니를 좋아하잖아.

우리 엄마는 인기쟁이 할머니야. 나도 엄마처럼 인기 있는 만딸, 아내, 엄마, 언니, 처형, 이모, 고모가 되도록 노력할게.

지금 내가 아쉽고 마음이 아린 건 아빠랑 상원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할 때 지금처럼 엄마랑 올케, 조카들에게 마음을 쓰고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말이 역할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동생에게는 미안해, 엄마한테 착한 아들, 나한테는 든든한 동생 해줘서 고맙고 저 높은 파란 하늘 좋은 곳에서 아빠랑 동생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처럼 서로 많이 챙기며, 우애 있게 사는 모습 보여줄게. 엄마는 몸 잘 챙기며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자식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열심히, 이쁘게 살아가는 모습 지켜봐줘. 그러기 위해선 말이인 내가 중심 잘 잡고 모범을 보여야 겠지. 나 잘할게. 지금처럼 변함없이 엄마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큰딸이 되도록.

엄마!!!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빠랑 동생이 있어! 우리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 말고, 좋고 행복했던 추억 많이 생각하며 살자. 얼른 초 긍정의 권여사로 돌아와 줘. 자식들 모두를 대표해서 말이인 내가 말할게

우리 건강하게 낳아주고, 바르게 키워줘서 고맙고, 사랑남

2021년 4월 따뜻한 햇살과 맨살에 와 닿는 바람이 좋은 어느 날
엄마 큰딸 올림

제가 더 많이 사랑할게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어색해지고, 어색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하던 식사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주말이면 떠나던 여행도 모두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색하고, 점점 지쳐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어떤 맛집을 갈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집에 들어가 어떤 요리를 부모님과 함께 할까?'의 고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며 장을 보는데, 물건을 고르는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만 고르는 엄마였습니다. 물건을 고르시며 "우리 예은이 파스타 좋아하지? 우리 딸이 커피 시원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얼음도 사자! 어렸을 때 이 과자 참 좋아했는데 아직도 좋아하는 것 보면 참 입맛 안 변해. 그렇지?" 얼굴에 온화한 웃음을 띄며 장을 보시는 엄마를 보면서 왜 그렇게 죄송하고 안쓰럽던지...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 망설이시면서, 다 큰 딸이 좋아하는 과자 취향까지 맞추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생신을 맞아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좋은 화장품을 사드리기도 하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오히려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잘 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편한 사람일수록 더 마음을 써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왜 그렇게 숙스럽고 부끄러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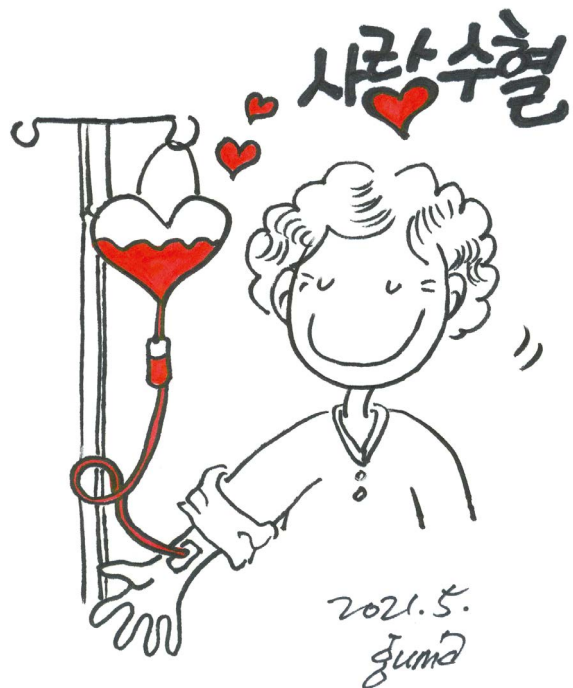
아침마다 정돈된 옷 입고 가라고 옷을 다려주시고 손수 신발을 꺼내주시는 모습에도 제대로 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지 못한 채 뛰어나오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 보려합니다. 부끄럽지만 손수 음식도 만들어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꽃다발과 함께 영상편지도 찍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려합니다. "엄마, 아빠 더 많이 사랑할게요. 그 사랑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오래 고백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마음은 표현해야 안다는 말처럼 이번 어버이날은 나의 마음이 온전히 부모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이번 어버이날은 엄마랑 함께 장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사준 과자 참 맛있었는데, 엄마는 시원한 커피보다 따뜻한 믹스커피 좋아하지? 우리 엄마는 조개가 들어간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오늘은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번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광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위해 온전히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쑥스럽지만 더 늦기 전에 고백해보세요.

“엄마 아빠, 제가 더 사랑할게요”



잊을 수 없는 흉터

나는 어린 시절 항상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장난 때문에 하루에 꼭 2~3번은 사고가 발생하여 부모님께서는 항상 장난꾸러기인 아들을 키우시느라 많이 애를 쓰셨다. 어린 시절 생각나는 많은 사고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감사했던 경험을 글로 써보려고 한다.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장난을 치던 나는 창문에 얼굴을 대는 것에 재미를 느꼈고 얼굴을 창문에 문대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되어 위험하다고 말리셨지만 어머니에 반응에 더 재밌었는지 멈출 줄을 모르고 장난을 하였고 결국 사고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창문 지방에 코를 박아 코 오른쪽이 찢어져 피가 나기 시작하였고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오시더니 코가 찢어져 피가 나는 부위를 지혈해 주시며 우는 나를 달래주셨다.

그 후 어머니는 나를 번쩍 안아들더니 집 근처에 택시 승강장으로 쏙살같이 뛰어가서 바로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가달라고 하시고 응급실에 도착한 뒤로는 기억이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형광등이 먼저 보였고 그다음으로 나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과 깨어난 모습을 보고 의료진을 찾으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가 데리고 오신 의사선생님께서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해 이 말썽꾸러기야”라고 하시며 코를 꿰맸다고 설명해 주셨다. 퇴원할 때는 아버지에게 안겨서 집에 가는 동안의 내가 본 어머니는 아버지의 슬리퍼를 신고 있으신 기억이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 후 식사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았더니 나중에 커서 아버지께 들은 말로는 어머니께서 너무 급한 나머지 맨발로 나를 안고 택시 승강장까지 뛰어가셨다고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나의 감정은 화도 나고 죄송하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버지께 말을 듣기 전 코의 흉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서 생긴 흉한 상처였다면 아버지께 말을 들은 후의 흉터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흉터가 되어있었다.

곧 5월 8일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부모님께 작은 선물과 용돈도 준비하여 찾아뵈었을 때 선물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 때문에 좋아하실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저절로 뿌듯한 미소가 지어지지만 ‘평소에도 마음먹은 만큼만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평소에 했던 행동들을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한다.

최근 뉴스에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무조건 자식에게 헌신해야 되거나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사례를 보았을 때 안타깝고 분노가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처음으로 자식을 키운 것일 텐데 나를 잘 자라게 해줘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들이 잘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알아서 잘 커준 거라고 얘기하시며 쑥스러워하신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내가 부모님에게 느끼고 있는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대다수의 다른 부모님들의 아들, 딸들이 느끼고 평소에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생각에만 그치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글을 본 계기로 큰 행동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모님들의 하루의 시작이나 중간 또는 끝을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또한 그것이 하루로 끝이 아닌 자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보약 같은 존재이신 부모님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2019년 1월 원대병원에서 중대뇌동맥 뇌경색(ACI at Lt. MCA territory)이라는 악성 뇌경색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큰 혈관이 막혀 혈전 역시 크기가 커서 성공적으로 뚫었지만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 실어증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과 의지력의 결여 등으로 담당 교수님들이 재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권유하였지만, 폐 섬유화, 만성 신부전 등 여러 질병과 노령으로 인해 치료를 거부하셔서, 우리 가족들은 1년이라도 곁에 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간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금씩 호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아프거나 지칠 때 보약 같은 존재로 살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은혜 수기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는 뇌경색 발병 당시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후유증을 최소화하였지만, 악성 뇌경색으로 불가피하게 남게 된 장애를 재활을 통해 최소화하고 신경학적 회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이론은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나에게 커다랗고 듬직한 산이었는데, 사고 이후 아버지의 뒷모습은 야트막한 둔덕이 되어 당신의 몸 상태를 인지하는 듯 하다가도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실어증으로 소통이 불가능했으며 편마비로 힘이 없어져 자꾸 넘어지셨지요. 식욕 감퇴와 면역력 저하로 조금의 기온 차이에도 감기란 독한 놈은 매번 찾아왔고, 폐 섬유화라는 질병을 가지고 계시기에 혹시나 감기 악화로 섬유화가 더 진행되거나 앓을까 노심초사해야만 했으며, 운동 부족으로 자주 변비와 복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너무나 약해지신 아버지의 뒷모습에 가슴이 아팠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잡수고 싶은 것 있으세요?” 물어보면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고, 퇴근길에 지친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갈 때면 그리움에 지친 눈으로 얼른 가서 쉬라고 손짓을 하셨지요. 식사 때면 축 처진 어깨로 본인도 힘드실 텐데, 당신은 괜찮다며 자식들 식사 걱정만 하셨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도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 등이 있을 텐데도 여쭙보면 고개를 저으며 “우린 괜찮다” 하셨지요.

그때는 이런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선생님 말씀을 어렵게 이해하면서 긴장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의 괜찮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아프고, 두렵고,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는 주문이며 자식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그러면서도 혹여 자식들에게 신경을 쓰이게 할까 봐 걱정되어 괜찮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은 훗날 그리움에 눈시울을 적시지 말자고 다짐했지요. 그 후 저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불편하고 아픈 아버지와 힘들게 간호하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며 병원의 진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옆에서 챙겨 드렸고, 조금의 운동에도 오히려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식물들도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건강과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의 자식들 때문이었지요. 언니와 저 동생들은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소수의 가족단위로 자주 찾아뵙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재미있게 풀어 이야기



를 들려 드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악성 뇌경색이 발병했을 때는 1년 만이라도 우리 곁에 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지금은 고향집 앞 마당을 쉬어가면서 열 바퀴씩이나 돌기도 하시고 실어증이라는 후유증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아버지가 81세의 연세로 아프고 지친 몸을 이끌며 좌절 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뇌경색, 재활 치료, 폐 섬유화, 만성 신부전, 전립선 비대 등으로 원대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노령임에도 희망과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성의껏 진료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지나도록 말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제 마음을 말하고 싶어요.

“아빠 엄마 정말 오래 오래 우리들 곁에 계셔 주세요.
그냥 옆에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의지가 되며 힘이 된답니다.”

부모님 사랑 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화창한 봄날.. 부모님을 사랑하는 둘째 딸 올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화창한 어느 날, 거울을 보시며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나이를 먹었을까,,,”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내 맘대로 안되는구나” 하시며 한숨 섞인 말을 내뱉으시던 우리 어머니!!! 88세의 연세이지만 혼자 삼시세끼 다 차려 드시고 집안 청소도 잘 하시고, 곱게 단장하고 노래교실도 고전무용도 잘 다니셔서 참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자식들을 위한 아침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무릎이 아프다 하시면서도 주말이면 빠짐없이 20분 거리의 교당도 꼭 걸어서 다니시면서 교당에 다니시는 즐거움과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많은 짐을 들고도 택시비 아깝다며 걸어 다닌다고 하실 땐, 제가 엄마에게 “택시비 줄테니까 제발 택시 타세요” 라고 하면서 화내고 짜증내며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많이 걸어 다니신 덕분에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나 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척추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계속해야만 했을 때 어머니의 바램은 부디 정상적인 사람으로만 살아 갈 수 있기를 바라셨지요. 그런 바램대로 저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늘 엄마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찍부터 병원을 가까이 한 덕분에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엔 아픈 사람들을 돌 볼 수 있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원불교의 인연으로 원광대학교병원 간호사로 입사한 지 벌써 34년째, 1987년, 아직 어리게만 보였던 20대의 둘째딸을 경상도에서 전라도라는 먼 곳으로 보내면서 한없이 눈물지으셨을 어머니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먼 타지에 혼자 보내 놓고 밤 근무하며 타지 생활 힘들어하는 딸 때문에 늘 가슴 졸이며 걱정하시다가 어쩌다 한번 저를 보고 가시는 날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명절엔 모처럼 엄마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 떠나올 때면 이것 저것 여러가지 반찬거리 챙겨주시면서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지요. 언니, 동생 몰래 생선 한토막 더 싸주시다가 들키면 “둘째 딸만 엄마 딸이냐”고 핀잔을 듣기도 했었지요. 그러면 엄마는 웃으시며 “너 무 멀리 사는 딸이라 자주 못 보잖아” 하시면서 저의 보따리를 챙겨 주시곤 하셨어요. 엄마! 이젠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 타지였던 이곳은 이젠, 저의 젊음을 다 바친 제2의 고향이 되었고,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리를 잡았지만 언제부턴가 엄마의 세월은 어느덧 해가 지고 있는 듯하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복통이 심하여 검사한 결과, 담낭염 수술이 필요하지만 연세가 많아 전신마취 때문에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엄마는 폐기능 검사도 잘 통과하셨고 수술도 생각보다 무사히 잘 마쳤어요. 3주간의 병원생활을 마치고 밀양으로 돌아가셔서 딸이 일하고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도 아주 잘 받아서 건강하게 돌아왔다면서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자랑을 하셨지요.

저도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엄마가 치료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늘 강인하고,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투정을 다 받아 주실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힘없고 약한 모습이 보여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원불교에 마음을 두시고 교당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모든 일에 열정이 있으시니 감사 할 따름입니다.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하시던 날. “멀리 있는 딸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참 좋다” 하시면서 해맑게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도 조금씩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익산에서 밀양까지 5시간 걸리던 거리도 이젠 2시간 반이면 기차로 엄마에게 달려 갈 수 있으니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차를 타고 구경 다니시며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우리 엄마!
딸들과 함께 더 많이 여행 다닐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엄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희생

안녕하세요 저는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2돌을 앞두고 있는 남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학예사로 일 주일에 2-3일씩 다녀가고 평상시에는 아이와 친정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두 분에 대해 그리고 모두가 같겠지만 제가 느끼는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원이 고향이시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원에서 익산으로 분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언니, 아래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성격도 유하시고 언제나 굿은 일을 다 도맡아 하시고 남들은 하지 않는 나의 책임 밖의 일도 묵묵히 하시는 근면한 분이십니다. 눈이 오면 동네 눈을 쓸기도 하고,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먼저 청소를 하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시고, 늘 자상하게 저희들을 챙겨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리시고, 순수하시기에 주위 사람들이 자꾸 의지를 하려하고, 너무나 순박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해서 어머니께서는 속앓이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한 성격에 비해 매사에 판단을 확실하게 하시고 일을 당하시면 그 순서를 잡아서 바로 처리를 하시고, 집안의 살림을 살피는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껴어왔고 그러는 동안 배포도 키우시고, 그만큼 마음속에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에게 그 아픔을 다 잊었다고 그래도 내 도리는 다 하며 살아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일을 당했을 때는 항상 당신의 책임이라 생각하시고 해결하려 하시는 마음이 여리고 나누려는 분이십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그만큼 병원에서 20여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40세가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동산수도원에서 인문학 특강을 듣게 되면서 동산수도원 원장님에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토라는 길을 권유받게 되었고 지금의 교무를 만나서 정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무로 공사에만 전념하던 남편은 아무런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고민하는 모습 속에 결혼한 후에 분가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땀이 많은 교무를 위해 에어컨이 있는 안방도 내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었습니다.

남편 교무도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만큼 가족계획도 급한 문제였는데 다행스럽게 결혼하면서 바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서 응급실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몸에도 이상이 와서 자궁에 물혹 제거를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게 될 뻔했지만 다행스럽게 간단한 시술로 해결을 할 수 있었고, 아기의 태명을 건강하게, 은혜롭게 강은이라고 지어서 튼튼하게 자라서 만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아기를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4일 밤 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으로 입원을 하였고, 어머니는 그 다음날 정밀검사를 통해 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 어머니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고 임신한 동안 어머니께 때로는

투정하고 때로는 화를 냈을 때 그때마다 아픈 몸을 숨기시고, 어떻게든 아기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혼자 스스로 다 감내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밤새 울면서 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있는 남편은 정해진 휴가 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근무지에 향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어머니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의 결과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수술, 암 이러한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지 않더라도 그 병마를 이겨내는 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우리 제 산후조리 하는데 도와주시고, 아기 돌보는 게 미숙한 우리 부부를 대신해서 돌봐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은 병고 속에서도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처음이라 서툴기만 했던 우리 부부에게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지했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제 무거운 마음도 조금씩 덜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도리를 다하며 사셨으면서도 그에 맞는 대접도 못 받아본 어머니, 늦게 결혼하는 딸에게 찾아온 아이가 잘못될까 당신의 병을 숨기고 계셨던 어머니, 항상 우리 자매 걱정, 남동생 걱정애 고생하시는 어머니, 이제는 손자까지 돌봐주시면서 늘 챙겨주시는 우리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부처님을 버리신 어머니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고 심장이 천둥 치듯 쿵쾅거리며 요동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후 알게 된 일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어머니께 더 못 다한 효도와 드리지 못한 사랑이 마냥 아쉽다. 지난 4월 초, 어머니 살아생전 가깝게 지내며 말동무를 해주시고 자식들에게조차 내비치지 않은 속마음을 흥금 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하신 큰어머니를 멀리 광주에서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다. 가벼운 점심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나들이를 부인과 같이 나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가다 고택찻집에 앉아 옛날을 깊이 회상했다.

큰어머니는 큰아버지를 여의시고 홀로 지내면서 같은 처지인 어머니와 자주 여행을 다니셨고 어머니가 파킨슨병과 치매로 거동이 불편해 병원과 요양원에 계실 때엔 멀리 광주에서 찾아오셔서 자식들보다 더 오래 계시다가 가시곤 하였다. 요양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수중에 용돈이 없으셔서 큰어머니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돈 좀 주시라고 하셔서 드렸더니 큰 댁에 귀가할 무렵에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하시면서 돌려주셨다고 한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거동을 못하고 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니 무슨 돈이 필요하겠느냐며 용돈을 드리지 않았던 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죄송했다. 눈물이 쏟아지려 하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옆에서 부인은 붉어진 눈시울을 연신 닦아내며 훌쩍거렸다. 이윽고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나는 많은 누나들과 여동생이 있는 집안에 아들 하나로 내가 생각해도 곱게 자랐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는 할머니께 딸만 낳는다고 구박을 받으셨고 밖에서라도 아들을 낳아 와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아버지께 대놓고 하셨단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고향에 있는 천년 고찰 무위사에서 백일기도와 탑 돌이, 불공치성을 드리고 아들인 나를 낳으셨다고 누나가 말씀하셨다. 그런 연유로 누나들과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면 구박을 하고 못마땅해 하시고 전국 사찰에 가시게 되면 복전함에 돈을 넣고 불상에 절을 하셨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몹시 서운해 하셨지만 새신자 초청 모임에 모시고 가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마지못해 다녀오시면서 다시는 안간다고 하셨다. 큰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3-4년 전부터 어머니와 절을 가시면 “들어갔다 오이시요, 나는 안 들어갈라요” 하며 대웅전 밖에서 기다리셨다는 것이다. 한참 지나 큰어머니께서 이유를 물어보자 “아들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부처님한테 절 하겠소.” 하시면서 먼 발치에서 기다리셨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면서 마음속에서 통곡이 흘러나오며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옆에 있던 부인은 연신 눈물을 훔쳐냈지만 나는 내색을 앎으려고 먼 산을 쳐다보며 행여 눈물이 쏟아질까 고개를 쳐들었다.

아버지를 여의시고 홀로 긴 세월을 지낸 외로움과 많은 자식이 있어도 모시지 않은 씁쓸함을 드린 것도 모자라 2년 남짓 어머니가 계신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했던 마음속의 불평,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했던 것들이 생각나며 더 잘해드리지 못한 불효에 대한 후회가 가슴을 후벼뚫었다. 이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며 평생 숭배하며 법회를 다니고 불사를 이어가며 감사 인사를 드린 부처님을 포기하셨다.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종교를 바꾸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보내주셨다. 이 크고 높은 사랑을 주신 어머니가 너무 너무 보고 싶다. 이 글을 쓰면서도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나에 대한 실망으로 감정이 폭발쳐 오르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다. 돌아가시면 다시 올 수 없는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후회하지 말라는 말을 수 없이 들어왔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자마자 후회가 물밀듯이 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부모님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 생전에 최선을 다해 마음껏 효도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운 어머니께

1997년 4월 29일. 이 날을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다.

이 날은 5년여 동안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생활 하시던 어머니에게 내 콩팥을 이식하여 드렸던 날이기 때문이다. 원광대학교병원 소병준 교수님 집도하에 오전부터 수술에 들어가서 성공리에 수술을 마치고 어머니와 나는 한 병실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기까지 정말 맘고생 많이 했고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말 수술이 완벽히 진행되었고 이어서 2주간의 회복기간 그리고 어머니는 퇴원하셨어도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 자식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내 어머니께서는 정확히 52세 되던 1993년에 만성 신부전증 증세를 발견하여 투병생활을 시작하였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번 투석을 하다가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얼마 안가서 일주일에 세 번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급격히 나빠지는 건강을 지켜볼 수만 없었다. 담당의사께서는 이식수술 외에는 방법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주저할 생각도 없이 내가 하겠다고 하고 조직검사를 실시했는데 천만다행히도 조직이 기가 막히게 나고 잘 맞았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아내와 장모님의 걱정스런 염려가 있었지만 나는 강행했다. 드디어 수술날짜가 잡혀서 1997년 4월 29일에 이식수술을 하였던 것이다. 모두의 염려 속에 수술은 성공리에 마쳤고 그 후 내 어머니께서는 21년을 살으시다가 2018년 1월에 77세를 일기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의 일생은 한마디로 고행의 연속 고난의 일생이었다.

아버지께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셨기에 일찍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버섯공장, 공사 현장일, 식당일 등 험하고 힘든 일들을 여자의 몸으로 모두 짊어져야 했고,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은 화병으로 일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다행히 원불교를 만나서 마음공부 길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양하시어서 모든 일들을 당신의 숙업으로 받아들이셔서 마음을 열어 주시었다.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 어머니께 효도를 하는 길이 무엇일까 진로를 고민하던 끝에 나는 전무출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어머니의 염원 속에 전무출신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였기에 나는 몇 번이나 중도에 마음을 바꾸려 하였으나 어머니께 차마 불효를 할 수 없었다. 아마도 지금 저 세상에 계시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가장 기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머니께서 세상 떠나신지 금년 어느 덧 3년이 되어간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파킨슨에다 노인성 질환이 겹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년 3월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이 나와서 주간보호센터에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혼자 계시다보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어 얼마 전부터 내가 본가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 아버지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해야하나 그런 생각뿐이다. 어찌되었든 내 아버지이니 내가 다 안고 가야만 한다. 다행히 주간보호에 잘 적응하고 안정을 찾으시니 그나마 다행이다. 아직은 이런 생활을 병행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어머니 가신지 3년, 그리고 점점 더 기력 쇠해져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의 근본 되는 이 몸을 얻게 됨이요” 라고 가르쳐 주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부모 피음을 생각하게 된다. 내가 과연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어찌 존재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반문해 보면 내가 당연히 은혜를 갚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한다.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心志)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는 부모 보은 조목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어머니 투병생활에 내가 간병하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빠짐없이 헌혈에 참여하면서 봉사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기 시작하여 어느덧 352회라는 헌혈기록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어머니를 통해서 건강을 돌보는 지혜를 갖게 된 것이다. 더 이상 헌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평생동안 지속하리라 다짐한다.

며칠 있으면 어머니 생신일이 다가온다. 살아계셨으면 79세이시다.

생전에 모범적인 생활과 실천으로 가르침을 주셨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오직 자식을 잘 되기만을 바라며 일생을 헌신 희생하신 어머니의 일생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오늘도 집 거실에 모셔있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한없이 그리워한다. 살아생전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말씀 한 번도 못 드린 불효막심한 아들이 오늘도 어머니를 그리워 그리워 하다가 잠이 듭니다.

어머님 ! 후디 다시금 사랑 몸 받아 오시어
큰 성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염원합니다.



우리 가족

무뚝뚝하지만 서로 생각하는 마음만은 깊은 저희가족은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굳건하게 스스로 해결해내며 집안을 돌보신 어머니와 교직자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족한 뒷받침으로 인하여 꿈을 이루지 못하셨던 아버지는 자식만큼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혼부터도 순탄하지는 않았고 양가의 반대와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시고 어렵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맘고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바라셨지만 이상하게도 축복은 내려오지 않아 5년 만에 어렵게 아이가 생기셨습니다. 그게 저희집안의 장녀인 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점만 쏙 빼닮아 딸아이가 없던 저희 집안과 시골마을의 어르신들의 보살핌과 애정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결혼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건강하기만 했던 딸은 잔병치레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큰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작은 수술과 시술을 계속 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고 어려운 형편에 주변 도움을 받아 병원을 다녔었다고 얘기하곤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안 상황이 좀 나아지고 제가 건강을 찾기 시작 할 즈음 2년 터울인 여동생이 태어나게 되고 저와는 반대로 동생은 어려서부터 아픈 적 없이 순하게 자랐습니다.

그 후로 순탄하게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첫째 딸은 항상 학업우수상을 안겨드렸고 둘째 딸은 예체능 쪽으로 흥미를 가지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커갈수록 저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살갑진 못하지만 안전한 딸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자신이 못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으로 제 뒷받침해주셨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저를 위해 남부럽지 않게 도움을 주셨지만 대학입시에 한번 실패하여 한 달 동안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내며 물 한 모금 겨우 마시며 점점 말라가고 스트레스 받아하는 저를 보며 일 년 정도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고 항상 다독여주시고 교당에 가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원하는 학과에 진학해 그토록 원하던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자라며 저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껴도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격이 살갑지 못하다는 이유로 딸임에도 불구하고 애교한 번 보여 드린 적 없었습니다. 사춘기에는 이유 모를 예민한 저를 다독여주시고 성인이 된 지금도 저희 생각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동생은 감사하다는 말 한번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한적 없었고 이제나마 그 마음을 전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어느 영상에서 감명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치매가 생기셔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아프신 부모님들이 혹여나 자식들 걱정하실까 숨기시다 증상이 심해지셔서 나중에 알게 된 자식들이 오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를 보며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기념일도 챙기고 선물도 드리고 바쁘지만 자주 찾아뵙고 하며 하나씩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저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계기를 가지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아프실 때 부모님이 안계실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자주 찾아뵙고 같이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표현이 서툴지만 서로 생각하는 저희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모를 통하여 가족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느낀 점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연 초록빛 가로수길. 봄 향기 가득한 사월.

푸르름이 눈을 부시게 하는 보리밭 길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출근하노라면 늘 행복하다.

일 년 반전에 고향 삼례로 이사를 해서 새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어 더욱 기쁘다. 때로는 가까이 살다 보니 귀찮고 바쁠 때 호출되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고향으로 오고 나서는 편안해진 마음은 상상외로 좋은 느낌이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 삼례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셔서 오남매를 양육시키고 교육 및 출가까지 시키셨다. 비닐하우스에서는 새 빨강고 탐스러운 수박 재배와 쪽파, 배추, 토마토, 딸기, 양배추, 강낭콩, 참외 등 안 해본 작물이 없을 정도로 근면 성실하고 당당하게 평생을 살아 내셨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늘 열심히 삶을 살아 내신 분들이다.

우리 오남매의 가슴속에는 부모님의 열정적인 삶의 모습이 살아 숨 쉬면서 삶의 지침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남녀 구별 없이 공평하게 키우셨고 형제간의 서운함이 없도록 훈육하셨다. 자식을 속으로 예뻐해야지 겉으로 예뻐하면 자식을 버리는 지름길이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교육시키셨다. 친정아버님은 생존에 계시지는 않지만 새벽에 일어 나서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 밥을 지어 여덟 개의 도시락을 싸시고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등교 길을 늘 함께 하셨다.

팔십년대 시골에 사는 여자들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의 눈총의 대상이 되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교육 및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존경한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오남매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와 끈기가 있지 않았나 싶다.

또한 보이지 않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기셨던 부모님.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한 채소며 과일을 이웃 및 친척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챙기는 모습은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오남매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아도 삶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이 있기에 부모님께 늘 감사합니다. 사월이 가기 전에 친정아버님이 많이 뵙고 싶습니다. 친정어머님은 팔순이 넘으신 연세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주름진 얼굴, 굵어진 손가락, 굵은 허리, 다리를 보노라면 가슴이 저려 옵니다.

친정어머님은 자주 전화해서 힘들 정도로 일도 많이도 한다고 하시지만 아버지 대신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아 주세요.

우리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합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9년이 되어가네요.

평소 허약한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고 챙기시더니 정작 당신 먼저 떠나시고 어머니께서는 홀로 15년을 더 사셨답니다. 어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으니 75세에 먼 길 떠나신 아버지보다 햇수로 11년을 더 사신 셈이네요.

1928년에 태어나 험난한 역사의 질곡을 곳곳이 헤쳐오신 우리 아버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우직하게 땅을 일구며 육남매를 정성껏 키워주신 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롭습니다.

아들 딸 차별 없이 키워주셨고, 명절 때 시댁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중인데 어떻게 나가냐는 며느리의 전화소리를 우연히 듣고 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라며 흔쾌히 외출을 허락하시며 딸보다 며느리를 더 위하셨던 탁 트인 마인드를 지닌 멋진 분이셨지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거들고 텃밭에서 가꾼 야채를 가지런하게 다듬어 챙겨주는 등 그 시대에 참 보기 드물게 자상한 아버지셨습니다. 직접 농사지는 쌀이며 곡식, 김장김치 등을 자식들은 물론 부모님을 일찍 여읜 아버지의 동생들과 홀로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살뜰히 챙기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 별미를 나누며 호숫해하신 마음 따뜻하고 인정 많은 분이셨습니다. 매사에 근검절약하면서도 아낌없이 베풀며 사신 아버지의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저희들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작은 것이나마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거나 친구들이 찾아오면 불편할까봐 일부러 마을을 배회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함께 있자며 살갑게 대하기는커녕 모른 척 외면했던 저 자신이 무척이나 원망스럽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기에 술이라도 마셔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던 아버지께 술 한 잔 따라주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아쉬움과 회한이 훨씬 덜했을 텐데..... 돌아보면 못해드린 일들만 떠올라 후회가 밀려오고 죄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경지정리 후 기계를 이용하여 수월하게 농사짓는 광경을 보면서 무엇 하나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던 시절에 농사지으며 고단한 삶을 사신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디스크와 뇌경색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해져 한 쪽 다리를 뺀고 앉을 수밖에 없어 불편하게 생활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간호사인 딸로서 미리 세심하게 살펴드렸다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던 횡수도 점점 줄어들고 슬픔도 차츰 퇴색되어가지만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은 오히려 깊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즐겨 드시던 홍어나 회, 매운탕 같은 음식을 마주할 때면 아버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노계 박인로의 '조흥시가'를 읽으며 부모님을 여읜 자식의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느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의 모습이 뇌리에 또렷이 남아있지만 아버지 환갑 때 카네이션 꽃바구니 앞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코팅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며 가끔 꺼내보고, 방에는 액자를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드리며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키워 줬은 자그마한 박 바가지와 직접 재배한 콩을 차마 먹지 못해 지금껏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고 나무라실까요?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골집을 틈틈이 찾아 텃밭도 가꾸고, 가끔 간식을 사들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웃어른을 공경하셨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있습니다. 명절, 제사, 어버이날 즈음이나 김장철에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살아계실 때처럼 먹거리 등을 사이좋게 나누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정신적 가르침대로 착하고 정직하게 근검절약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서로 알뜰살뜰 챙기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큰오빠도 조상님들 제사에 정성을 다하고 있고요.

아버지!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다시는 그 모습 뵈 수 없고 그 목소리 들을 수 없어 슬프지만 아버지의 일생을 기억하며 분에 넘치게 받은 큰 사랑 간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머무는 곳마다에서
늘 건강한 심신으로 행복이 충만한 삶 살아가시길.
늘 기도할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나의 아버지



2015년 아버지는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다.

연세가 많아 걱정을 했지만 무사히 퇴원을 하셨다. 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던 아버지는 얼마 후 호흡곤란으로 다시 응급실을 방문 했다.

서울 딸집에서 요양하던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기도삽관을 해야 한다는 말에 모든 처치를 거부하시고 막내딸이 있는 원광대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에게 가다가 응급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안된다고 말씀 드렸지만 아버지는 강하게 본인 의사를 표현 하셨다.

아픈 과정에서도 딸이 간호사여서 많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아버지...

119 응급차량을 타고 오며 많이 불안하고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병원 응급실에 도착 했을 때 아버지는 힘든 몸이지만 미소를 보이며 “이제 되었다”라고 한마디 하시는 모습에 안도감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막내딸이 옆에 있어 좋다.” 라고 이야기 하셨다.

그 뒤로 우리 6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힘든 고비를 하나하나 넘기며 울고 웃는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 당당하게 딸들에게 간병해달라고 이야기 하시고 당신이 돈 먹는 하마라며 웃으며 농담하시던 우리 아버지. 아프시면서도 자식들과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며 잘 이겨내 주시는 아버지가 넘 감사 했고 딸이 근무하는 병원이 너무 안심이 되고 좋다고 말씀 해 주시던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다.

병원 로비에 들어 설 때마다 휠체어에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하던 그때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막내딸인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내 목숨 주라하면 못주는데 내 자식이 아파 내 목숨 주라하면 아버지.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에 아버진 나에게 “너도 아버지에게 그런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그때 난 마음이 찡 했고 눈물이 핑 돌았다.

생각하면 아버지 표현은 잘못했지만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고 따뜻한 분이셨다.

난 아버지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랑을 느꼈고 지금도 마음 따뜻하다. 이제 아버지는 내 곁에 없지만 아버지로 인해 우리 6남매는 하나가 되었고 가족들의 소중함 또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살면서 가끔 힘들 때 하늘을 본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잘 듣고 있지 하고 말을 건넨다.

아버지에게 투덜거리다 보면 내 마음도 어느새 풀리지곤 한다.

난 오늘도 현관 로비를 들어서며 아버지에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오늘도 간호사인 나를 자랑하던 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며 힘을 내본다.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 주시던 아버지가 있었기에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늘 사랑했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곁에 있어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엄마가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의 생김새는 특별히 변한 게 없지만 엄마의 말투와 성격,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주 해줬던 김치콩나물죽 맛이 어땠는지와 같은 사소한 것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10여 년 전 유난히도 추워 이불 속에서 게으름만 피우던 어느 오전, 국제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엔 보이스 피싱이라고 여겨 받지 않았겠지만 엄마 회갑을 기념하여 부모님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후여서 그곳에서 온 전화라고 미뤄 짐작하고 받았다. 그런데 전화기 건너 들려온 목소리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었다.

“저.... 여기 일본 현지 가이드인데요.... ○○○씨 따님 되시죠?”

“네....”

“놀래지 말고 들으세요. 어머님이 엿그제 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어머님은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고 아버님은 병원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계속 계세요. 아버님이 경향이 없으셔서 식구들 전화번호를.....”

점점 아득해지는 현기증이 느껴질 때쯤 통화를 끝내고 기억에 남는 가이드 이야기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전화하게 되었고 엄마는 교통 사고로 병원에 치료 중이고 아빠는 병원 근처에서 숙소를 잡지 못해 병원 안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틀째 지내고 있다는 거였다. 엄마 상태에 대해 물어보니 입원하는 시점까지만 알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오늘은 방문하여 아빠와 전화 연결을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오만 생각이 다 들었고 걱정과 염려로 인해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계속 심호흡을 하였다. 핸드폰 벨이 울렸다. 역시 아까 그 국제번호였다.

아빠 목소리는 벌써 떨리고 있어 그 마음고생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왔다.

“어. 아빠. 밥은 먹었어? 잠은 어떻게 하고 있어?”

한참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빠는 헛기침 소리만 간신히 몇 번 내뱉고는 “밥이 있어도 넘어가지도 않고 잠도 안와서 못자고 있어. 내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걱정이 되는지 소변에서 피가 나와..... 그런데 님 엄마를 하루에 두 번 볼 수 있는데 사지가 다 묶여 있고..... 입에 호스도 꽂고 있어서 말을 못 해.... 옆에서 아빠가 여러 번 불렀는데도 안 본다.... 깨어날 수 있는거냐?” 흐느끼다시피 하면서 궁금한 걸 겨우겨우 물어보는 아빠는 내가 지난 몇 년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매일 만났던 어느 보호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같이 울지 않으려 몇 번의 심호흡을 한 후에야 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그럼..... 원래 머리 다치면 그런 상태야.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셔.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지만 아빠는 병원에서 꼼짝 않고 대기실에 있다면서? 끼니도 걱정이고....” 내 모습도 지난 몇 년간 보호자들을 대하는 병원에서의 간호사 모습 그대로였다. 단지 환자가 내 가족으로, 장소가 우리 병원이 아닌 일본의 어느 병원으로 다를 뿐이었다.

동생들은 다니고 있던 직장도, 최종 합격한 아르바이트도 모두 그만 두고 일본으로 출국할 준비를 하여 바로 다음 날 새벽에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 보냈다. 일본에 도착하여 남동생은 숙소를 잡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어 아빠를 보살피고 여동생은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하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된 상태여서 생각보다 훨씬 일본에서 잘 대처해 주었다. 나도 근무하는 병동 동료들과 수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일 빠른 비행기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석달동안 나는 엄마가 사고 이전으로 나올 수 있을까란 믿음이 강했는지 종종 건강해진 엄마의 꿈을 꿔다. 꿈속에 엄만 예전과 똑같다고 이젠 다 나았다고 너무나도 생생하게 말하며 나를 안아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나는 혼자 한국에 도착해 새벽에 집에 가니 우편물이 많이 와있었다.

‘아!!!! 연말이라서 세금 내야 하는구나....’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꼭 기간 내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 세무서에 가서 내야하므로 주택 소유에 관한 문서랑 함께 가지고 세무서에 가보란다. 그런 서류를 엄마가 어디에 뒀을지 대충 짐작되는 장롱 깊은 서랍을 열어보니 그 곳에 필요한 서류가 있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이 있었다.

엄마는 몇 해 전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삶의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편지를 썼던 모양이다.

그런 표현조차 우리들에게 짐이 될까라 생각했는지 티 한 번 내지 않고, 주지도 않고, 붙이지도,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혼자 간직하고 있었나보다. 내가 사춘기가 지독하게 와서 아빠와 자주 부딪혔던 시간들 속에 애달아 하는 엄마의 시선이 있고, 반항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고 혼자 간호대를 지원해버린 나에 대한 원망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공부하란 잔소리 없이 대학 입시를 치룬 거에 대한 고마움과 뿌듯함도 있었다.

난 다 잊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모든 걸 다 고맙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떨리더니 엄마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나서는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사실 난 10대 이후부터 그 때까지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나 나의 부족함으로 일을 그릇칠 때도 엄마에게 화풀이하고 엄마와 아빠를 원망하곤 했었다. 그리고는 그런 행동에 뉘우침이나 미안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는 엄마, 아빠임을 감사하다고 말 한 적도 없었다. 한 번 시작된 울음은 멈추질 않았고 엄마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일본 의사와의 면담 이후로 엄마와 비슷한 환자들을 간호했던 경험으로 이미 그때 알고 있었나보다.

이제 더 이상 이 편지 속에 엄마는 없다고.... 그래서 더더욱 미안함에 후회로 눈물이 멈추질 않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그 때 이후로는 더 이상 엄마가 전부 나았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안아주던 꿈을 꾸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엄마의 치료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후에도 우리 병원에서 이어져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몇 해 전 여동생이 입덧으로 통 먹지 못할 때 제부한테 전화가 왔다. 여동생이 엄마가 자주 해주던 김치콩나물죽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나한테 알려달라는 전화였다. 그런데 난 예전에 엄마가 김치콩나물죽을 자주 해줬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엄마에게 물으니 “옛날에 김치콩나물죽 만들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만드는 방법은 기억이 않나...엄마는 사고 난 후에는 너네 키웠던 기억

도 하나도 앓나.....” 사고 후에 엄마는 사고 전의 많은 기억을 잃어버렸다.

겨우 아빠와 단출하게 지낼 작은 살림살이를 할 능력만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가까운 거리는 버스 타는게 어려워 걸어다니고 아빠와 먹을 반찬은 만들지만 간을 보지 못하는 딱 그 만큼의 기억으로 살아 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나의 기억을 더듬어 여동생에게 내주니 예전 엄마가 해주던 맛이 아니라고 하였다.

“언니. 언니는 엄마 음식 솜씨를 닮지 않았나봐...

그냥 김치콩나물죽인 건 알겠는데 엄마 맛이랑 달라”

“야... 당연하지. 난 생긴 것도 아빠만 짝었잖어...”

우리는 서로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했다.

난 아빠를 닮고 엄마는 거의 닮지 않았다.

그리고 비단 닮지 않은 건 외모 뿐 아니라 솜씨나 마음씨도 닮지 않았나보다.

이제 나도 출산을 하여 두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 가슴이 까맣게 탈만큼 큰일도 있었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속상한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는 그저 자고 있는 아이에게 소곤거리며 고즈넉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속삭인 적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 본 기억은 없었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딸과 남편에게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말이나 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나왔던 말, 행동의 반성을 편지로 종종 써야겠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엄마와 아빠에게도 편지를 써야겠다.

내가 표현하지 않지만 매 순간, 지금 이대로의 엄마와 아빠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엄마, 아빠 지금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요.’라고 말이다.

이렇게 나도 엄마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엄마의 밥상

아직도 힘든 날이면
생각나는, 엄마의 온기 가득한 음식
한 그릇의 음식이 전하는, 사랑했던 날들.

엄마는 항상 바쁘셨어요. 일도 하시고 가사일도 잘하셨죠,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엄마 밥이 생각나던 날,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지금도 좋구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면 “밥 다 됐다. 어서 들어와!” 이렇게 전화하시며 저를 불렀어요.
한참 재미있게 놀다 집에 들어가면 집 안에서 피어나던 밥 냄새와 맛있는 음식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맛있게 먹던 음식들이 아직도 소울 푸드처럼 생각나요. 특히, 김치찌개와 월남쌈을 자주 해주셨는데 입맛이 없는 어느 날일 때면 저도 모르게 그 음식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면, 내 안에, 내 옆에 엄마가 살아 숨 쉬는 기분이에요.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마음은 볼 수 없지만, 항상 우리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차려진 식탁은 생생하게 기억돼요.
그때, 받았던 사랑의 기억처럼.

한 번도 대충 차려준 적이 없어요.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 내주셨죠.
그런 엄마를 통해 내 자신이 엄마에게 참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따듯한 밥상이 떠오르는 어느 날 한없이 소중한 엄마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답하는 5월이 되기를,
어릴 적 따듯한 기억이 아닌 오늘의 기억이 되기를.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께

2004년 어느 봄날 나이트 근무 후 자고 있는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하신 어머니

“너의 아버지가 죽게생겼다”며 빨리 오라고, 결혼한지 3년차 시댁이 순창이라 자주 뵈지도 못하였는데 그리고 어디가 아프시다는 말씀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다급한 전화 한통에 가보니 아버님은 심한 출혈로 기력이 거의 없으신 상태로 “왔냐?”라고 한마디 하시고 그 이후 작별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찾아온 이별, 막내며느리라며 무심한 듯 발에 있는 고추를 따다주시고 버스타고 시골온다며 운전면허를 50세 넘는 나이에 따서 미중 나오시던 아버님. 아버님을 보내는 그날 결혼하고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 마음에 얼마나 울었던지.

그리고 기적처럼 2005년에 아버님의 선물처럼 저에게 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출생 시 알게된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때 아버님을 묵놓아 불렀습니다.

하늘에 뺨이 아버지밖에 없으니 울 아기 좀 지켜 달라고, 그래서였겠지요.

울 아기는 2번의 수술을 잘 견디고 지금은 건강하고 듬직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불렀던 아버님. 부탁하기 위해 불렀던 아버님을

17년만에 마음 속 저 밑에 넣어둔 아버님을 불러봅니다.

저희 곁에 항상 계신다는 생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꽃구름 위를 거닐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짧았던 아버님과의 추억속에 항상 아버님은 무심한 듯 웃고 계셨고, 절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년차 새댁이 아버님과 가깝게 대하진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20년된 며느리가 조심히 말해봅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언제나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옆에 계셔주세요,

전 항상 아버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이번에 시골집을 예쁘게 꾸민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잘 모시고 있겠습니다.

2021년 4월 어느 봄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내 꿈은 수간호사

‘간호사’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을 때 저에게 간호사란 ‘엄마의 직업’이었습니다.

어렸던 시절엔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밝은 모습과 과분한 사랑만 주시던 엄마였기 때문에 감히 간호사라는 직업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쉬운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누가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수간호사’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할 정도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무지했습니다. 어쩌면 딸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엄마의 노력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로를 고민할 때 ‘간호사는 힘드니까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때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엄마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찾아온 슬럼프 때문에 다시 간호사라는 꿈을 꾸려고 했을 때 별말없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지원은 다 해주겠다고 하시던 엄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간호학과를 다니면서부터 느꼈습니다. 저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요. 그리고 제가 한 일에 책임이 뒤따른다는걸요. 평생을 이 일을 한 엄마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든일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일 보다는 제 능력 때문에 힘들어 한 일이 있었을 때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엄마도 속상하실까봐 참다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직업을 가진 선배이자 어머니가 해서 하소연을 했을 때 엄마는 선배로써 조언을 해주어야 할지 엄마로써 조언을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며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래도 먼저 엄마로 저를 보듬어 주시고, 그 후엔 선배의 입장으로 조언해주시는 엄마를 보고 저는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엄마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엄마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딸의 발전을 위해선 쓴소리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유치하고 한심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당신이 걸어왔던 일이기에 다 저를 위해서 조언해 주셨다는 걸요.

제가 힘들어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한다는 걸요. 고작 이 일을 한지 2년도 안되었는데 이 직업이 좋기도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당신의 그림자를 이정표 삼아서 따라가겠습니다.

간호사를 하며 3교대를 하며 피곤하셨을 텐데도 주말마다 저희와 추억을 위해 항상 여행을 가주시던 엄마, 모자람 없는 사랑을 주신 엄마에게 ‘너무 대단하며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한 딸이지만 든든한 선배이자 어머니 당신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저랑 오래오래 있어 주세요.

받기만 한 사랑을 평생 다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께 제 마음을 전합니다

아빠, 엄마.

언제 불러도 다정하고 따뜻하기만 하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부모님의 은혜’ 공모전이 있어 더 늦기 전에 생각만 했던 제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생겼어요. 슬프게도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짧음에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어린 시절 유독 욕심도 많고 울기도 잘하는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줄 때까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부모님을 힘들게 한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는 일들을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생각하면 죄송하기만 합니다. 가족들과의 지난 추억을 떠올리면 몇몇 소소한 기억들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퇴근길 아빠 양복 주머니에서 나오는 초콜렛에 기뻐했던 삼남매, 추운 겨울 자식들 줄 생각에 식을까 가슴에 품고 온 봉어빵, 좁은 방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놀던 추억, 비싼 펜션이 아닌 가족끼리 떠난 텐트 여행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은 넘치게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보니 ‘두 분도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해가 돼 뒤늦은 후회가 됩니다. 당신들께서도 처음이었던 직장생활과 부모 역할에서 항상 긍정적이며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잔소리를 하며 가르쳐 주시지 않고 몸소 실천하시며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삼남매는 지금도 웃으며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사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중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도요.

시간은 누구에게도 공평한 것 같지만 유독 우리 부모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머리카락에 흰 눈을 내리게 하네요. 항상 건강하기만 하실 줄 알았던 두 분이 감기에도 며칠을 몸살을 앓고, 밥이 보약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영양제 좀 구해 줄 수 있냐고 미안한 듯 조심스럽게 부탁해 오시는 걸 보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큰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저 건강히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기쁨이 된다는 걸요.

이제 미루지 않을거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며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 말고, 후회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드리고, 같이 여행할래요.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저희에게 선물했듯이 이제 제가 부모님의 노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릴게요.

기쁘거나 슬플 때, 힘들거나 아플 때,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걱정 없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젠 압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길러주셨다는 걸요. 부디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두 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의 귀염둥이 둘째딸이.

단벌신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단벌신사다.

언제나 회색 티에 색 바랜 청바지를 입고 역삼각 몸매를 뽐내시고는 했다. 동네에서도 어떤 아저씨들보다 멋있고 돋보이셨다. 어머니도 '너희 아버지는 화려하게 입지 않고 티셔츠 한 장만 걸쳐도 멋이 나는 사람이야.'라고 자랑하실 정도였다. 하지만 철이 없던 나는 학교에 정장을 차려입고 오시는 부모님이 부러웠다. 부모님은 야식장사를 하셔서 정장을 입을 일이 없으셨지만 이기적인 마음에 어버이날이나 생신이 되면 셔츠나 넥타이핀, 브로치를 선물로 드리곤 했다. 하지만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부모님 보다는 나의 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점점 부모님의 옷에는 관심 없어져 갔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으며 고등학생이 되고, 1학년 첫 새 학기를 등교하는 날이었다. 교복을 짧게 접어 입고 몰래 화장품을 바르며 등교를 준비했다. 아침밥만 먹고 학교 갈 생각에 설레어 하며 방에서 나왔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안계시고 어머니와 두 언니만 부엌에 모여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용히 곁에 가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급하게 입원하느라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해주셨다. 무엇 때문에 입원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됐으나, 얼른 학교 먼저 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하고 등굣길에 나섰다. 설레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걱정과 두려움만 가득했다. 어떻게 수업을 마쳤는지도 모르고 혈레벌떡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간병하러 병원에 계시고 집에는 언니들만 있었다. 어머니는 어린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언니들은 너도 알아야 한 다며 아버지의 병명이 적힌 종이를 건네줬다.

그 안에는 '교모세포종', '2년의 시한부' 등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써있었다. 하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아버지와 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며 기적을 일으켜 보자며 다짐하고 수술하면 관창을 거라고 믿기로 했다. 하지만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술 후 상황은 나빠져만 갔고 담당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1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방송가의 꿈을 꾸었던 나는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여 진로를 다시 정하고, 큰언니는 소방관을 포기했고 휴학을 한 작은언니와 야식집을 운영하며 병원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류마티스로 관절이 다 돌아간 어머니는 본인 몸보다 2배나 큰 아버지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전문 간병사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열심히 간병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돌아가며 아버지를 간병하며 남은 시간에 감사하며 뽕뽕 뭉쳐 지냈다. 그러다 내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날 병원 반찬으로 생선이 나왔다.

뇌부종으로 팔 힘도 떨어진 아버지를 위해 생선 가시를 발라서 흰 밥 위에 조심하 올려드렸다. 아버지는 물끄러미 한참 말없이 손가락을 내려다보다가 내 얼굴을 보며 '현지 네가 어릴 때부터 생선을 참 좋아했는데, 가시를 못 발라 먹어서 아빠가 다 발라줬는데, 그 때마다 언제 우리 현지가 커서 아빠 생선 발라주나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음이 날 것 같은 표정을 숨기기 위해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애꿎은 생선살만 헤집어냈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모두 1년이라고 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고 아버지는 떠나셨다.

어머니와 우리 세 자매는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사람들처럼 지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그 저 시간이 악이라는 말처럼 이 슬픔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빈자리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찾아갔고 큰언니는 결혼이라는 큰 행복을 맞이하게 됐다. 언니가 출가하기 전, 사진을 가져간다 하여 먼지가 꽤 꽤 쌓인 앨범들을 꺼내어 정리를 시작했다. 앨범 속에는 부모님의 어린 시절, 신혼 시절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진 속 우리 세 자매는 늘 예쁜 머리띠를 하고 있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여러 해가 지나도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한 치수 정도 큰 옷을 입고 있었다. 어린 우리를 안으며 웃고 있는 부모님의 나이는 지금의 내 나이와 같았다.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회색 티만 입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큰 옷을 사서 오랫동안 입고 싶던 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 가며 그렇게 희생하고 사셨던 것이다.

지금 나의 옷장에는 새 옷들과 비싼 옷들이 널려 있다. 심지어 그 반절가량은 입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도 얼마나 많은 것이 입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야식장사를 하셨던 부모님은 365일 중 365일을 일해도 자식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꼭 들어주셨다. 나중에 어머니께 물어보니 야식장사를 하니까 아침에 잠을 포기하고 낮 동안 놀이공원이나 갯벌, 산을 가고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장사를 했다고 했다. 지금 삼교대를 하는 나도 밤을 새면 이렇게나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까지 했냐고 묻자 너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럼 왜 옷은 맨날 입는 것만 입었냐고 물어보자, 그저 웃으시면서 ‘글쎄’라고 대답하셨다.

나중에 큰언니가 조카를 낳고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한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내가 옷 하나 사 입는 건 별거 아니지만, 티셔츠 하나면 장난감이 중고에서 새것으로 사줄 수 있고, 바지 하나면 책 한권을 더 사줄 수 있으니까.’라고 말이다. 가슴이 먹먹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내 속을 채워 나가는 것만 같았다. 사실 고3 1학기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나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사랑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이 보낸 시간은 짧을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덜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남을 만큼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반에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부족하겠지만 어머니에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드릴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빈자리가 있을 때 저를 돌봐준 멋진 언니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예쁜 딸들과 함께 앞으로는 꽃길만 걸어요.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1932년 7월생으로 올해 90세이신 나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핸드폰에서 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여보세요”

“야 내다” 와 함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뚝뚝한 이야기, 오늘은 자고 일어나 마당을 왔다갔다 걸었는데 숨이 많이 차다로 시작한다. 어느 날은 어깨가 아파서, 하루가 지나면 허리가 아파서, 며칠째 변비가 심하여 볼일을 보지 못했다 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말씀을 하시지만 수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것은 마음 한 کن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래는 모습이 느껴진다.

나의 어린 시절 스쿨버스를 놓쳐서 엉엉 울던 때, 아버지는 커다란 짐 자건거에 나를 태우고 십리 길을 썰렁 달려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젊은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젊은 날 아버지와 함께 풍미를 즐기던 자전거는 오랫동안 창고 뒤쪽에 세워진 채 낡고 녹이슬어 가 죽을 벗겨내듯 허물을 벗고 당신은 귀가 잘 안 들리고 상황 파악도 느리고 자주 설명해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아버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병원에 방문할 때 “몇 층 진료과에 앉아게서요.” 하면 주차하고 오는 동안 진료과를 찾아서 앉아 계셨다.

지금은 진료 부서를 찾지 못해 병원 현관에서 주차를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당신을 찾지 못할까봐 피우고 싶은 담배도 참고 앉아 계신다.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던 담배는 이제 하루에 3개피로 줄었다. 현재보다 조금 더 젊으셨을 때는 금연 해야 한다고 그리 많이 설명해도 듣지 않던 고집스런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것을 참고 계신 모습 또한 마음이 아프다. 어린시절 나의 보호자였던 아버지는 이젠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되었다.

절벽거리는 걸음으로 걷는 아버지는 진료를 보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OFF 날에 맞추어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본다. 밤 근무 끝나고 진료 볼 때가 많았고, 진료가 끝나면 아버지의 일상의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보청기 고치기, 관공서 업무, 은행 업무, 시장보기, 이제는 몇명 남지 않은 지인을 낚은 수첩을 뒤적이며 찾아볼 때 아버지의 표정은 서글퍼 보인다. 아버지의 밀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36시간 이상 잠을 안자고 다니던 힘겨운 시간들도 있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돌봐 주지도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니다 보면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어느 때는 막막함에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울기도 했었다.

돌이켜서 보면 태어나서 엄마 슬하에서 자랐던 기간만큼 엄마 없이 지낸 시간이 흐른 지금, 엄마는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고 가슴속에 먹먹함 만이 남아있다. 누구나 이승을 떠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죽음 또한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처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아 슬픔이 배가되고 늙지 않는 슬픔 때문에 후회가 더욱 깊어갔다. 이제는 그때처럼 후회 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어 다행이라 여겨진다. 신이 허락해준 시간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다.

초보운전을 할 때 남편한테 핀잔도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도 가고, 여행도 간 덕분에 운전 실력도 많이 늘었다, 아버지와 식사도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서스럼없이 나를 편안하게 대하신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하시는 모습이 갈수록 어눌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파악이 가능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나를 의지하듯 불편한 자리에 참석해야 할 때는 나를 꼭 부른다. 처음엔 왜 그러시지 나도 바쁘는데 짜증이 나기도 했는데 아마도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인 것 같다.

일제 식민지를, 6.25 동란을 겪고 배고픈 보릿고개를 건디시며 사셨던 우리 아버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느낄 시간도 없이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버티며 사셨다. 현재 뇌경색, 고혈압,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지만 예전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하신다. 힘들게 버텼던 시간과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는 사람처럼... ..

작년 딸들과 여행했던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며,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속초여행을 가고 싶어 하신다. 속초는 6.25 동란 시 군 복무를 하셨던 곳이다. 갑작스럽게 군 입대 하게 되어 생사를 알리기 위해 군에 공급해 준 끼니를 팔아, 그 돈으로 사진을 찍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신다. 그래서 잘생긴 군복 입은 멋진 남자가 낡은 사진 속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유이다.

내가 아버지한테 많이 해드린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환자의 불편함을 볼 수 있어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살필 수 있다. 고령의 환자를 보면서 아버지의 불편함이 느껴져 환자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다.

아버지를 보면 어느 순간엔 몸이 늙었으면 마음도 함께 늙기를 바란 적도 있다. 어느 때는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데 건강하실 때처럼 몸을 움직이려다 종종 다치는 경우를 볼 때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버지는 이제 몸을 아끼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려도 듣지를 않고 나에게 운전 조심해서 가라고 말씀 하신다.

모든 것이 불편해진 노쇠화된 몸이 힘들겠다고만 느끼지만 인생은 아버지처럼 좋은날도 있고 힘든날도 곳곳하게 버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좋을 수만 없고, 모든 것이 나쁠 수만 없다는 삶의 지혜도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은연중에 알게 되었다. 늘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통해 나이 들을 배워간다. 그리고 타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우리 사회적 통념상 나이 드신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말을 하면 ‘꼰대’라고도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그분들은 동시대를 공유하고 계신 우리의 스승이고, 삶의 방향 지표인 등대 같은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던 젊은 아버지, 지금의 나이 든 아버지 모두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관계로 당신을 만나 행복했고 더 많은 행복을 꿈꿉니다.~^^

내 지갑 속 흑백 사진

내 지갑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있다.

작년 늦가을 무렵이었다. 아빠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을 하셨다.

아빠와 나는, 물과 기름이었다. 아빠는 여름이었고, 난 겨울이었다. 너무 멀었다. 서로의 교집합은 찾을 수 없었고, 공감은 늘 부재했으며, 대화의 화법은 전혀 달랐다. 인생의 온갖 불행과 불운이 아빠로부터 기인했다고 여겼으며 그런 자의식은 지독하게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빠를 마음 깊이 헤아려보거나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 외면과 무관심이 습관이 되었다, 굳어졌다.

그날 밤.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호흡은 위태로웠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다. 생사 경계가 보이는 듯 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위급함을 알게 되었다. 응급실로 오는 구급차 안에서 아빠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고 메말랐으며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아빠의 고통과 더불어 생의 이력이 뒤섞여 떠오르고 사라지고 떠오르고 사라지고를 반복했다.

고스란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간절하게 아빠의 손을 잡은 첫 밤이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짧은 순간, 후회, 공포, 죽음, 두려움, 죄송함 등으로 뒤죽박죽이 되었고, 아득해졌다. 그 아득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잊히지 않는다. 응급실에 도착 후, 시술을 무사히 마친 다음 중환자실 입원을 하셨고, 몇 차례 위기를 겪으신 후 퇴원하셨다. 다행이었다. 퇴원하는 날. 바람이 맑고 차가웠다. 아빠는 작아 보였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황망함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빠와의 기억들이, 영화의 장면처럼 여러 날 여러 번 자주 스쳐 지나갔다. 아빠와의 시간을 원망하는 내 모습만 유난한 기억이었지만, 그 건 모조리 나의 시선과 이기심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처구니없게, 한 번도, 아빠는 힘들게 애써서 우리 가족을 지켜왔구나 라는 생각을 입때껏 못했다.

아빠도 아이였을 때가, 첫사랑의 연정을 간직했을 때가, 당차고 푸르렀던 청춘이었을 때가, 박봉에 어리고 어린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어깨를 굳건히 참고 견뎠을 때가 있었을 텐데, 왜? 독단과 오만, 편견에 늘 가족을 어그러지게만 하는 존재라고만 느껴왔을까? 아빠를 진심으로 바라봐준 적이 없으면서 아빠의 무관심과 성격만을 탓했을까? 아빠의 투박함과 거침만을 탓했지 그 안에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아빠의 사랑이었는데.....

겨울 끝에 봄이 온다. 아빠와의 겨울은 정말 지독히도 길었고 어두웠다. 그 끝점에 있는 빛을 향해 걸어 나아가듯이 더딘 발걸음을 시작했다. 그날 밤. 한 번도 뒤 돌아보지 못한 아빠와의 관계를 되짚어 보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같이 견디고 서로를 격려해 준 아빠와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원만한 일상이 행복이다. 원만한 일상은 아빠, 엄마로부터 유래했다.

내 지갑 안 흑백사진엔 젊은 아빠가 나를 안은 채 손을 잡고 있다. 그 온기. 이제야 기억나기 시작한다.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옛 어른들께서 하시던 말씀 중에 “부모가 되어 보아야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나 또한 큰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저 철없는 딸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큰아이가 서른이 넘었고, 이제는 나도 ‘엄마’라는 명칭에 꽤나 익숙해졌다. 문득 나의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이 그리워졌고,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간 때가 언제인지 까마득했다. 그러다가 날이 갈수록 거동이 불편해지고 약해지는 엄마가 보였다. 그래서 그동안 아들, 딸이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계실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루었던 엄마와의 여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작년 봄의 끝 무렵, 부랴부랴 사남매와 엄마와 우리만의 3박 4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였다. 엄마께서는 걸으로는 모두 힘드네 무슨 여행이나 하시면서 한 달 전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느라 전화통에 붙어 났다. 나도 오랜만에 동생들과 엄마와 여행이라 설렘었다. 우리의 제주도는 가는 날부터 비가 와서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다. 동생들도 어릴 때도 못 가봤던 가족여행을 이제야 가게 된다고 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다행이다. 엄마께서는 오설록 정원을 갔을 때, 천지연 폭포를 갔을 때도 “오늘이 제일 즐겁다.” 말씀하셨다. 또 항상 먹는 밥인데 제주도에 오니까 더 맛있는 것 같으며 평소보다 식사를 더 잘하셨다. 엄마가 “참 맛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왜 이제야 했을까. 제주도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오로지 나만을 위해 웃고 먹고 떠드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아쉽게도 나는 제주도 여행 중 익산에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하루 먼저 익산에 오게 되었다. 나중에 율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께서 이제는 시간 될 때마다 어디든 가보자고 하셨단다.

마음이 이상하였다. 엄마는 30년 넘게 보육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오셔서 평소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하여 우리가 병원비를 내면 손에 꼭 병원비를 쥐어 돌려주시는 분이다. 그런 엄마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다니, 감격이고 눈물이 났다.

얼마 전에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셔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다. 마음이 철렁해서 급하게 원대병원 응급실로 모셔서 검사와 진료를 보았다. 다행스럽게도 큰 이상은 없었다. 오래전부터 이명이 심해서 평소에도 자주 어지럽고 밤에 숙면을 하지 못하시기는 했지만 이렇게 전화를 하실 정도면 얼마나 참다가 연락하신건지 짐작이 간다. 아마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몸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더 아팠다. 감사하게도 원대병원 응급의료진과 이비인후과 외래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많이 좋아지신 듯 보인다. 요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78년간의 삶의 지혜로 남은 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껏 기대셨으면 한다.

엄마, 그 이름만 들어도 불려도 눈물이 나지만 엄마 딸로 살아온 오늘날까지의 시간이 항상 감사했어요. 우리 오늘도 노래 한 자락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합니다. ♡



못다 핀 꽃

“

못다 핀 꽃

당신의 아름답고 꽃 피던 젊음을

당신의 고단했던 삶을

당신이 나를 낳아줄 때 그 웃음과 설렘, 행복을

당신이 거름과 별이 되어 나를 꽃피우게 해주었던 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꽃 피던 지난 세월 들을 깨끗하게 모아

당신의 아름답고 꽃 피던 젊음을

당신의 고단했던 삶을

당신이 나를 낳아줄 때 그 웃음과 설렘, 행복을

이제는,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하늘

당신의 이름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

”



그대가 비춰준 길

“

그대가 비춰준 그 길이

나를 걷게 만들었어요

그대여

비싼 밥, 비싼 옷 많이 못 해준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내게 준 사랑

너무나 값진 것인데

고작 이거밖에 해줄수 없는 내가 미워요

세상에 제일 비싸고

좋은 것만 사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골라보라고

여자로 태어나 세월에 주름진다는 게

이젠 알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매일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며

상처받은 마음 안고서 눈물뿐인 지난날만

힘들 때는 뒤를 돌아 항상 내가 서있어

나의...부모님

”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 100년의 혁신을 준비하다

건강사회를 선도하는
맑고 밝고 훈훈한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발행처 원광대학교병원 발행인 윤권하 기획 홍보위원장 이명수, 홍보팀 최홍택, 문민선, 김지선 삽화 병리과 최금하 교수
주소 54538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대표전화 1577-3773 디자인·제작 원광사 063-855-3896 발행일 2021년 5월 8일 <비매품>
원광대학교병원이 2021년 개원 41주년을 기념하여 부모님 은혜 수기 공모를 시행함에 따라 응모작 내용을 소책자로 발행하였습니다.